d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480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효 순

Collection @ chosun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Focused on the Control Effect of Ecological System Factor-

2009년 8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효 순

Collection @ chosun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희 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효 순

dCollection @ chosun

김효순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吳乙生

위 원 호남대학교 교수 吳世胤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龍燮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眞澈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朴垕紹

2009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1절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이해 ····· 6

1. 인터넷 중독 ····· 6

2. 청소년기와 인터넷 중독 ····· 13

3.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 17

제2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 20

1. 생태체계 관점 ····· 20

2. 생태체계 관점의 유용성 ····· 22

제3절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 24

1. 개인적 요인 ····· 24

2. 가정적 요인 ····· 27

3. 학교 요인 ····· 30

4. 인터넷 환경 변인 ····· 34

Collection @ chosun

제4절 선행연구 ····· 38
1. 선행연구 ····· 38
2. 선행연구의 평가 ····· 42

제 3 장 연구설계 ····· 44

제1절 연구모형 ····· 44
제2절 연구가설 ····· 45
제3절 변수의 조작화 ····· 47
1. 인터넷 중독 ····· 47
2. 인터넷 환경 ····· 48
3. 개인적 요인 ····· 48
4. 가정적 요인 ····· 49
5. 학교요인 ····· 50
6. 정신건강 ····· 51

제 4 장 실증분석 ····· 52

제1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 52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52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3
제2절 측정도구 검증 ····· 57
1. 인터넷 중독 ····· 57

dCollection @ chosun

2. 인터넷 환경변인 ····· 59
3. 정신건강 ····· 60
4. 조절변수 ····· 61
제3절 기술적 통계량 분석 ····· 63
1. 단일변수의 기술통계량 ····· 63
2. 특성별 차이분석 ····· 68
제4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 76
1. 상관관계 분석 ····· 76
2. 연구모형의 검증 ····· 79
3. 연구가설의 검증 ····· 80
4. 조절효과분석 ····· 82
제5절 분석결과 종합적 논의 ····· 103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 103
2. 가설검증 결과 ····· 106
3. 조절효과 검증 결과 ····· 107

제 5 장 결론 ····· 115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115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 115
2. 가설검증의 결과 ····· 116
3. 조절효과 분석결과 ····· 116

Collection @ chosun

제2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 117

제3절 향후 연구방향 ····· 120

참고문헌 ····· 121

부록 1. 설문지 ····· 139

부록 2. 분석결과 ····· 148

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2-1> 인터넷 중독 장애(IAD) 진단 준거 ····· 10
<표 2-2>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 42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4
<표 4-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 58
<표 4-3> 인터넷 환경변인 측정도구의 검증결과 ····· 59
<표 4-4> 정신건강 측정도구의 검증 ····· 60
<표 4-5> 조절변수의 측정도구 검증결과 ····· 62
<표 4-6> 인터넷 중독 수준 분석 ····· 63
<표 4-7> 인터넷 환경 변수의 기술 통계량 분석 ····· 65
<표 4-8> 정신건강 변수의 기술 통계량 분석 ····· 66
<표 4-9> 조절 변수의 기술 통계량 분석 ····· 67
<표 4-10> 변수 간 상관관계 ····· 78
<표 4-11> 모형검증의 결과 ····· 80
<표 4-12> 가설검증 결과 ····· 81
<표 4-13>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 83
<표 4-14> 성별에 따른 가설검증 ····· 84
<표 4-15> 스트레스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 86
<표 4-16> 스트레스에 따른 가설검증 ····· 87
<표 4-17>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 88
<표 4-18> 자기효능감에 따른 가설 검증 ····· 89
<표 4-19> 의사소통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 91

Collection @ chosun

<표 4-20> 의사소통에 따른 가설검증····· 92

<표 4-21> 양육태도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93

<표 4-22> 양육태도에 따른 가설검증····· 94

<표 4-23> 교사지지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96

<표 4-24> 교사지지에 따른 가설검증····· 97

<표 4-25> 친구지지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98

<표 4-26> 친구지지에 따른 가설검증····· 99

<표 4-27> 학업성취감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101

<표 4-28> 학업성취감에 따른 가설검증····· 102

Collection @ chosun

그 림 목 차

<그림 2-1>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형 ····· 21

<그림 3-1> 연구모형 ····· 45

<그림 4-1> 가설검증의 결과 ····· 82

<그림 4-2> 성별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85

<그림 4-3> 스트레스의 가설 검증결과 ····· 87

<그림 4-4> 자기효능감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90

<그림 4-5> 의사소통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92

<그림 4-6> 양육태도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95

<그림 4-7> 교사지지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97

<그림 4-8> 친구지지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100

<그림 4-9> 학업성취감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 102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Focused on the Control Effect of Ecological System Factor-

Hyo-Soon, Kim
Advisor : Prof. Hwie-Seo Park,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Internet environment variables on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mental health and present theoretical and political suggestions by analysing the control effect of personal factor, family factors and school factor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 identified factors of adolescents's addiction to the Internet in a view of ecological system based on bibliographical data and developed a cause and effect model.

The study interviewed 539 boys and girls who were attending to high school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for statistical analysis.

For an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we conducted a test of measuring tools, and an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features an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using SPSS 14.0. With a use of AMOS 6.0, we tested the cause and effect model and assumptions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data analyses:

When the addiction to the Internet of the 539 adolescents was analysed, 158 (29.4%) had suspected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6 subjects (1.2%) who had above 80 had severe addiction. 164 of the entire subjects (30.6%) who are

Collection @ chosun

attending to general high schools had above 50 points, which indicates that a focus should be given on the level of addiction.

The subjects who were attending to technical high schools showed higher points of addiction and boy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points of addiction than girl studen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ternet expectation, approach and anonymity that are included in Internet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ddiction.

Internet expectation, that is, the more expectation to the Internet experiences they had, they showed more addiction. The more anonymity, the higher rate of addiction was found. Through experiences to become someone else based on anonymity, they had higher sense of control and superiority, which led to more addiction. In respect to approach to the Internet services, the more harmful their regional and school environment were, the higher rate of addiction was found.

Second, gender as personal facto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s family factor, and teachers'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s as school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net expectation and addi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gender,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nursing attitude and friends' support had a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net approach and addiction.

Fourth, gender, stress, self-efficac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nurs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s had a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anonymity and addiction.

Fifth, gender, stress,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eachers' will, and academic achievements had a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addiction and anxiety.

Sixth, on the relations between addiction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gender, stress,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nursing attitude, teachers' and friends'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s had a control effect.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identified interactions between

Collection @ chosun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relevant factors and even mental health as a result of the addiction unlike previous studies trying to examine the addiction only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 few independent and subordinate variabl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mental health can be effectively managed and prevented if adolescents have care from parents, and positive relations with teachers and friends at schools though they are exposed to various stresses and Internet environment.

****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internet environment, adolescents, expectation, approach, anonymity, ecological system, control effect, personal factor, family factor, school factor, mental health

****

Collection @ chosun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IT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터넷은 우리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N세대로 통칭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이미 학교나 가정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인터넷의 활용은 정보화 사회를 연결해 주는 도구로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하여 일부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수한 인터넷 사이트 및 초고속 인터넷망의 급속한 보급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청소년의 이용률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되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민호, 2001).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등 사회적 환경에 못지않게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환경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조춘범, 2001) 인터넷이 청소년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증상은 더욱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1.6%가 고위험 사용자로, 7.2%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체인구의 8.8%가 인터넷 중독 혹은 과다사용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2.3%(168천명)가 고위험 상태이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12.0%(867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약물, 알코올, 또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라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사용에 탐닉되어 이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 등과 같은 병리적인 증

dCollection @ chosun

상을 보이는 중독 상태를 말한다.

인터넷 중독에 잘못 길들여진 아이들은 외톨이→인터넷 게임중독→학업중단의 순서를 밟거나 반대로 인터넷 게임중독→가정폭력→외톨이의 과정을 겪게 되며 단순히 인터넷이나 게임을 오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6, 2, 14). 이렇듯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중독된 대상과의 접촉을 끊을 경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 역시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인터넷 자체의 매력이 인간에게 강화나 쾌락을 제공한다(송원영, 1999; King, 1996)는 견해, 인터넷에 보다 중독되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중독을 일으킨다(Griffiths, 1996; Pratarelli et al, 1999)는 견해,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못하면 인터넷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발달하기 때문에 중독이 야기된다(임은미, 2000; 장재홍 외,2003; 조영, 2004; 조영란, 2003; 조희창, 2003; 채규만 외, 2001 ; Davis, 2001; Griffiths, 1996; Park, 1996; Young, 1999)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에 관하여 욕구충족 이론에 근거를 두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욕구충족 이론에서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근원은 욕구를 유발해내며 이로 인한 매체나 그 외의 정보원천들을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접촉하게 유도하여 욕구충족을 가져오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Katz et al, 1974). 즉 인터넷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근거한 자신의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이 때 뜻하지 않은 부정적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현상(조희창, 2003)이라는 것이다. 욕구충족 이론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려고 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 현상을 인터넷 환경 변인과 개인 특성 변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중독 예방에 있어서의 실제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와는 다른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dCollection @ chosun

인터넷 중독이 약물이나 도박 등 여타의 중독 현상과 다른 점은 중독 대상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학습과 상호교류를 위한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즉 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중독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 전부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인터넷 환경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이들 간에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환경과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요인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조절요인이란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유도하는 보호요인을 의미한다(Garmegy, 1985).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인터넷 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킴으로써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이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청소년들의 개인적·환경적 특징을 규명해 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이 되었으나, 주로 몇 가지 개인 및 환경적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성향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있을 뿐,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인터넷 환경요인과 인터넷 중독수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인터넷 중독이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인터넷 환경요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Collection @ chosun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조절요인들을 규명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환경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다.

둘째, 인터넷 환경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절요인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넷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절요인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변수들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터넷 환경요인이며, 이것은 인터넷 중독을 통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절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절변수의 탐색은 인터넷 중독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인터넷 환경요인으로는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등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gender),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들에 따라 인과관계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셋째, 가정적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에 따라 인과관계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넷째,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성취감 등을 선정하여, 이들

Collection @ chosun

요인에 따라 인과관계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보았다.

다섯째,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불안감과 강박증으로 나누어 인터넷 중독과 조절요인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연구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전문서적, 논문, 각종 보고서와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 보았다.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탐색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아동·청소년 문제나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해 그 유용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도출된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인과모형을 작성하였다. 인과모형은 인터넷 환경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하였는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도출된 인터넷 중독 관련 영향요인들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도출된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등에 따라 인터넷 환경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할당추출과 층화표본추출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며 분석단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4.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측정도구 검증, 특성별 차이분석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6.0'을 활용하여 인과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이해

1.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등장한 인터넷 역기능 중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다. 중독(addiction)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라고 정의된다(이인혜, 1999). 중독의 개념을 대체로 물질 사용에 따른 생리적인 의존성과 내성 금단 현상을 동반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뒤따를 때 내려지는 진단이다. 중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물질 즉 알코올, 니코틴, 약물에 의존하는 물질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도박, 쇼핑, 지나친 TV시청 등과 같이 특정한 행위나 활동에 의존하는 과정중독이다. 과정중독 현상 중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한 중독과 이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활동 자체에 대한 중독을 말한다(조남근 외, 2001; 양돈규 2000).

정신병리에서 중독은 알코올이나 코카인, 마리화나 등과 같은 각종 중독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리적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을 동반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직업적 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의 장애가 수반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물질 사용으로 인한 중독과는 달리 인터넷 중독은 물질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충동조절 장애라 하며, 물질사용인 알코올 중독과 약물중독과 마찬가지로 금단과 내성, 사회적·직업적 기능수행에 장애를 가지고 오는 증상이다.

Griffiths(1999)는 행동적 중독도 약물중독과 거의 유사하게의존성, 기분변화, 내성, 금단, 갈등, 재발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의존성은 어떤 특정한 활동이 한 개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 발

Collection @ chosun

생하며,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좌우한다.

둘째, 기분변화는 특정한 활동에 몰두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나 대처방식으로 주관적인 감정으로 도피할 수 있거나 감정을 마비시키는 어떤 특정한 것에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

셋째, 내성은 이전의 결과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특정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넷째, 금단은 특정한 활동이 계속 되지 않거나 갑자기 감소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 상태나 신체적인 결과로, 불안감, 우울, 흥분,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섯째, 갈등은 특정한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인관계적인 갈등, 일 사회생활, 취미와 같은 활동들 사이에서의 갈등, 개인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재발이란 특정한 활동을 다시 하고 싶어서 이를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경향이나 절제나 통제를 한 후에도 다시 중독의 증세가 극도에 달하는 경향을 띄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개념을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tal disorder)에 수록된 병리적 도박의 기준을 원용하여 진단 기준을 제안하였는데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코올 중독이나 충동적 도박과 같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알코올 중독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상실, 갈망과 내성증상, 사회적 철회, 결혼 불화, 학업 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Davis(2001)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인터넷 중독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매, 주식거래, 도박, 온라인게임, 사이버섹스 등과 같은 특정기능에 의존하는 인터넷 중독을 병리적 인터넷 이용하는 특정한 목적이 없이 인터넷상에서 오랜 시간 보내는 것을 일반 병리적 인터넷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이기준(2000)과 하지현(2000)은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은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물중독으로 보았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병리적 도박, 섭식장애, 알코올중독과 같이 잘 알려진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다양한 중독행동을 보이면서 현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인지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에 명백히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장애라고 요약 할 수 있다(Young,1996; 윤재희, 1999).

Collection @ chosun

김청택(2002) 등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을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일탈행동 및 현실구분 장애, 가상적인 대인관계 지향성으로 요약하였고, 이순묵 등(2005)은 성인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과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을 인터넷 중독정도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대한 과다하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내성과 금단 증상을 비롯한 일생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심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단지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고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현실생활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심각하게 들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터넷에 장시간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중독의 유형

인터넷 중독은 중독대상에 따라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물중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란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첫째, 게임중독은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많은 PC방들이 이름부터 게임방이거나 게임네트워크 스테이션이라 불리고 있다. 게임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의 대중적 언어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많지 않다. Suler의 욕구실현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처럼 현실에서 획득하기 위한 욕구가 게임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공부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지위가 게임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이다. Suler는 이를 가성실현, 가짜 자기실현이라고 했다. 게임에서의 지위는 현실에서 동료집단 내부의 지위는 되겠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지위일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만 유효한 지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게임에 흔히 중독되기 쉽다고 한다. 이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각성과 주의력 이동(attention shift)이라는 현상을 게임이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단지 중독 될 뿐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도 그만두

Collection @ chosun

게 되고, 부모와 대립하게 되며,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며 게임 속에서의 자기를 바로 세우게 된다. 게임중독의 증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밤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 졸거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며 특히 게임중독증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점으로는 게임의 폭력성에 노출되고,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며,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되어 현실에서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통신중독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의 순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현실도피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통신의 종류로는 채팅, 머드게임, 정보서핑, 도박, 쇼핑 등이 있으며, 중독의 원인으로는 통신을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빠지게 되는 것과 통신상에서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신의 고민이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채팅에 빠지게 된다. 과도한 통신중독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자기 통제력의 상실,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음란물 중독은 특히 청소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독으로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후, 청소년의 대부분은 중학교 때 음란물을 접했다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음란물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빠지기 쉽다 컴퓨터 음란물 중독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음란물에 접근하고, 밤새도록 보고 낮에 졸거나, 부모와 대립하기도 한다. 또한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음란물을 보고 난 후 연상작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으며, 성충동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내용의 설정이 대다수인 음란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며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Collection @ chosun

2)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 정의나 진단기준은 학자들마다 다소의견이 다르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나 도박중독자들과 비슷하게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김청택 등, 2002).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는1995년 영국의 정신과의사인 Goldberg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인터넷 중독이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장애, 주의력장애, 사고력장애, 판단력장애, 정신운동성 행동 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장애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DSM-IV의 병리적 도박 또는 약물남용 장애의 진단준거를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증 공식기준'을 <표 2-1>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Goldberg, 1995).

<표 2-1> 인터넷 중독 장애(IAD)진단 준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적응적 행동양식으로, 임상적인 중요한 장애 또는 고통을 유발한다. 12개월의 기간 중 언제든지 일어나며, 다음 중 세 개 이상이 충족되면 병으로 간주된다.
1. 내성-다음 중 어느 하나
1)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됨
2) 계속된 인터넷 사용으로 똑같은 시간을 써도 만족이 크게 줄어듦
2. 금단- 다음 중 하나
1) 특정적인 금단 증상
(1) 오랫동안 심하게 해오던 인터넷 사용 중단이나 감소
(2) 항목 (1) 이후 며칠에서 한 달 사이에 다음 중 2 항목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① 정신운동초조(Psychomotor agitation)
② 불안(anxiety)
③ 인터넷에서 무슨 일어나고 일이 거라는 강박적 사고

dCollection @ chosun

④ 인터넷에 대한 환상이나 꿈

⑤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자발적 비자발적 운동

(3) 항목 (2)의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의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병을 일으키는 경우

2) 금단증상을 피하거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나 비슷한 온라인 서비스 사용

3. 종종 의도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또는 더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게 됨

4. 인터넷 사용을 끊거나 통제하려는 지속적인 바램이 있거나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5. 막대한 시간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활동에 소모함(예: 인터넷 관련 서적구입,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보려고 함, 인터넷 상품검색, 다운 받은 자료를 파일로 조직화하기)

6. 중요한 사회적·직업적 또는 여가활동을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기하거나 줄임

7. 지속적이고 재발되는 신체적·직업적 문제, 또는 인터넷 사용으로 야기 되거나 악화되는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용을 계속함

출처: Goldberg, I. K(1995) IASG(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 official criteria. http://plazal.snu.ac.kr/~psyber/iad.htm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의 시작은 임상심리학자 Young에 의해서이며, Young의 인터넷 중독의 척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DSM-IV의 '병적도박'의 진단기준을 응용하여 1996년에 발표한 척도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이상 항목에 '예'라고 응답하면 중독으로 보았으며 이는 병적 도박의 기준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98년에는 8문항 척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더욱 세분화된 척도가 발표되었는데,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으로 중독여부를 판별한다. 점수의 합이 50점 이상이면 경미한 중독수준으로 보며, 80점 이상이면 심각한 중독수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Young(1998)의 연구를 토대로 척도의 총합이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인터넷 비중독집단으로,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간혹 혹은 항상 인터넷으로 인해 학업상의 소홀과 같은 현실생활의 어려

Collection @ chosun

움을 호소하는 인터넷 중독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만, 중독집단에 속한 대상자들의 심각수준을 알아보는 일환으로 중독집단 내 경미한 중독수준과 심각한 중독수준의 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인터넷 중독의 증상

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와 진단체계가 확실히 수립되지 않아 학자들 마다 다소의견은 다르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자들과 비슷하게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박적 사용과 집착이다. '할 일을 하기 전에 이메일부터 확인 한다' 거나 컴퓨터를 다시하게 될 때가 몹시 기다려진다 등과 같이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울하고 울적해 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찾게 되는 등 중독 된 사람들은 대개 컴퓨터 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거의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어울려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까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불평을 듣게 된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숨기며 집에 배우자나 다른 식구들이 없으면 안도감을 갖고 접속하는 등과 같은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둘째, 내성과 금단이다. 내성이란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양의 활동을 하게 된다. 온라인상에 있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컴퓨터를 끄고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 진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된다. 금단증상이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듯이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허전해 하거나 그 행동을 중지하거나 행동량을 줄이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안감, 우울증, 짜증 등의 증상이 생긴다. Young(1996)은 지나친 의존의 결과 학생들의 성적부진, 부부관계의 악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나 해고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며,

Collection @ chosun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중독자에 비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명준과 권정혜, 2000). 인터넷을 과도하게 하거나 인터넷 이용에 집착하게 되면 인터넷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며 마치 인터넷 속의 가상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실감의 결여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일탈행동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청소년기와 인터넷 중독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란 사춘기에서 성인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청소년이란 이 시기에 있는 자로서 지적·정서적·신체적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신체발달과 함께 성호르몬의 발달과 2차 성적 특징의 출현을 보인다. 이러한 신체적·생리적 변화는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 그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적 특성발달과 함께 청소년기는 지능의 우열에 의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지능발달이 지체된 청소년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은 형식적 조작의 사고를 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역적·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후기에는 점차 현실적·합리적 사고를 갖게 되며 자신에 대한 탐색도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들은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정서적 갈등은 불안감과 과민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신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긴장감을 수반한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나 폭주, 폭식 등 정서적 불안감이나 긴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이시기에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한다.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나의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며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자기 회의적인의문과 심리적인 갈등은 청소년들에게 정체감 혼미를 야기 시키며 그들만의 특별한 시련과 아픔 및 이러한 혼미를 통해 정체감 확립을 이루어 나간다. 이 밖에도 가족 성원들의 개인적 발달과정

dCollection @ chosun

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은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시기다. 따라서 부모 자신들이 건강한 가족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로서 역할을 조화롭게 이어간다면 청소년기 자녀도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그들은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배타적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한상철, 2004). 이 밖에 다른 요인들로는 세대 차이는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성문제, 약물사용 및 흡연문제, 인터넷 사용문제, 정치적 태도 및 종교적 가치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반면, 부모들은 대부분 보수적,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어 청소년 세대와 대화가 단절되기도 한다(장휘숙, 2004).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특성중 하나로 청소년기의 특징인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리와 독립의 요구는 부모가 모르는 자기만의 공간이 되어주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충족시키고, 좌절감의 분출은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이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하는 장소가 되어 주기에 이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장재홍, 유정이 외, 2002).

2)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 새로운 생활공간이 된 세대이기 때문에 N(New Generation)세대로 불리며 이들에게서 인터넷은 기성세대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기술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타인과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정보의 공유와 자신감, 효능감, 개방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이세용, 2000)는 장점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몰입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최근의 청소년들은 과거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던 TV시청 대신 인터넷을 하고 있다. 친구와의 대화도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가 아닌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활용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남이 아닌 서로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것이 일반

Collection @ chosun

적인 현상으로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Suler(2000)는 청소년들이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이유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아정체감 탐색과 실험, 둘째, 친밀감과 소속감의 형성, 셋째,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 넷째, 좌절감의 분출구를 위해서 가상공간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매체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터넷에 흥미를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더 이상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 영향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의 획득이라고 할 때, 인터넷은 추상적 사고와 상상만으로 자아를 탐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양한 역할을 경험 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인터넷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 실감나는 화면과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불안전한 인지능력을 보완해 주고, 과장된 자의식을 만족시키며,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안전감을 부여해준다.

이처럼 현실에서 여가 시간 및 여건의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만족감을 주는 가상공간, 또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과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부모의 통제 부족 등이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성과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 하였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형성 및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요인인 쌍방향성은 청소년들에게 가상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상에서 뉴스그룹, 채팅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 이 만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부담 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게 된다. 가상공간에서 이러한 관계형성을 청소년들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행한다면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감을 초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 요인 중 우울감이나 충동성은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자아가 완전히 성숙된 단계가 아니고 과도기적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중독자중 우울증이나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 인터넷 중독에 걸리기 쉽다고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기는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충동성이 잘 나타난다. 그렇게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조춘범, 2001).

Collection @ chosun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사용하는 인터넷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그것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강하고 유해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컴맹 세대인 보호자는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는 실력이 청소년들을 따라가지 못해 지나친 인터넷 사용을 방치하므로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더 심한 경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개인 및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안영화, 2006).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 몰입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인터넷이 유일한 놀이 문화라는 점과 대부분 학교가 끝나도 학원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비교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접근이 용이한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 속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새로운 문화가 되고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집단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며 현실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피하는 출구로써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인터넷 속에서 인정받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 계속되면 청소년들은 인터넷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족감이 지속되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이고 현실에서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왜곡된 인지를 가질 수도 있다(정상진, 2006).

Collection @ chosun

3.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용어는 원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해 정신병리학적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의 정상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송영숙, 2005). 일반적으로 건강이란 신체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신체적 건강은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로서 능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 건강은 이러한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개인의 행동방식과 감정 처리방식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은 물론 약점까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수용하고 현실적응이 빠르며 스트레스와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또한 외부적 영향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특성을 보인다(송영숙, 2005).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 의하면 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로서 질병이나 허약함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이란 물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정인선, 2005; 10-15 재인용).

미국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닌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성격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이란 사람이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고 잘 적응하며 만족과 성공,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다(장연집, 외 2006).

정신건강의 개념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즉 의학적 의미로 정신병이 없는 상태의 정신건강의의미로 이해하는 것과 주로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학적 의미는 물론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까지도 포함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 성격의 통합, 자율성의 유지정도, 현실 환경에 대한 지각능력, 환경의 지배능력으로 앞의 세 특성은 개인과 관련된 것이고 뒤의 세 특성은 개인과

Collection @ chosun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험적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문제를 중요시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송원영, 1998). 정신건강이란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처리하는데 여러 욕구좌절이나 긴장을 다룰 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설적인 지향을 하게 되며, 실패를 쉽게 이기고, 실패에서 새로운 용기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 하였다. 김윤희(2002, 2003)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특히 인터넷 중증중독군에서 대인 예민성, 신체화,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인터넷 중독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로 불안감과 강박증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안감

불안감이란 여러 상황 내에서 경험하는 걱정, 근심, 두려움 및 공포와 같은 말로 특정 지을 수 있는 불쾌한 정서를 의미한다. 불안장애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정신장애 가운데 가장 흔한 장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불안장애는 여러 활동이나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장애로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되며 한번 발생 시 최소한 며칠 이상씩 일어난다. 이들이 겪는 걱정과 염려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과는 별개로 끊임없이 지속되고 이 걱정들 때문에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불안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불안감은 긴장감과 염려 그리고 증대된 자율신경계통의 활동으로 특정지워지는 정서상태로 공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사태에서 발생한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공포가 야기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이 수반되는데 그것이 곧 불안감이다. 불안장애의 남녀의 발병비율은 1:2로 여자에게 많고 일반 불안 장애자의 경제적 수준은 낮고 신체적 호소는 적은 편이며 아동기에 심한 고립과 불안을 겪었고, 이것 때문에 심한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만성 긴장상태, 근심, 걱정, 언어기능 장애로 인한 욕구좌절 상태와 실망상태에 빠져 있으며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안영균, 2004).

불안장애가 있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순종적이며 완벽주의적이며 자신이 한 것이 미덥지 않아 해 놓고도 다시하려 한다. 임상에서 불안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이 55-60%로 많은 편이다. 불안장애 주증상은 위와 같은 걱정들로 인해 나타나는 안

dCollection @ chosun

절부절 못함, 쉽게 피로해짐, 집중곤란이나 마음이 멍해지는 느낌, 과민한 기분상태, 근육긴장, 수면장애 등이다(장연집 외, 2006).

2) 강박증

강박증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생태를 말한다. 강박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고나 행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증상에 저항하면서도 이를 잘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 실패가 계속됨에 따라 불안이나 우울증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강박행동은 셈하기, 순서짓기, 만지기, 확인하기, 손씻기, 물건정돈하기, 여러번 확인하기, 책의 읽은 부분을 다시읽기 시험답안지 재확인 등이다. 강박적 행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끌거나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윤재희, 1998).

김옥순(1998)은 대학생의 통신 고중독 집단이 통신 저중독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신체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더 강박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 더욱 예민하며 우울하였고 불안하며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정신적 성향이 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하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융통성이 부족하며 정서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딱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정상인에게도 다소 강박증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반복적이며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또는 대인관계에 지장을 일으키면 강박증이 된다. Patarelli, Brown과 Johnson(1999)등은 강박적인 성격에서 사이버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강박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재한 불안은 어느 정도 조절되지만 강박행동을 중지하면 불안증세가 다시 나타나므로 불합리 한줄 알면서도 반복하게 된다. 강박관념이나 강박행동 중 하나만 나타내기도 하며 둘 다 보이는 경우도 있다.

Collection @ chosun

제 2 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1. 생태체계 관점

생태학(Ecology)은 최근 들어 인간발달과 생활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 적용되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에서의 정의와는 다르게 인간 생태학(human ecology) 또는 사회생태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 생태학 이론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형성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체계 간에 존재하는 복잡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상호의존적 체계에 대해 연구 한다. 유기체와 외부 세계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생태학 이론의 핵심이며, 인간 생태학 이론은 사람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보다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 그 같은 인간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진다(Hawley, 1995).

윤종희(1994)는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 인간발달의 과정, 발달이 일어나는 환경, 모든 인간이 처해있는 다차원적인 환경들 간의 영향력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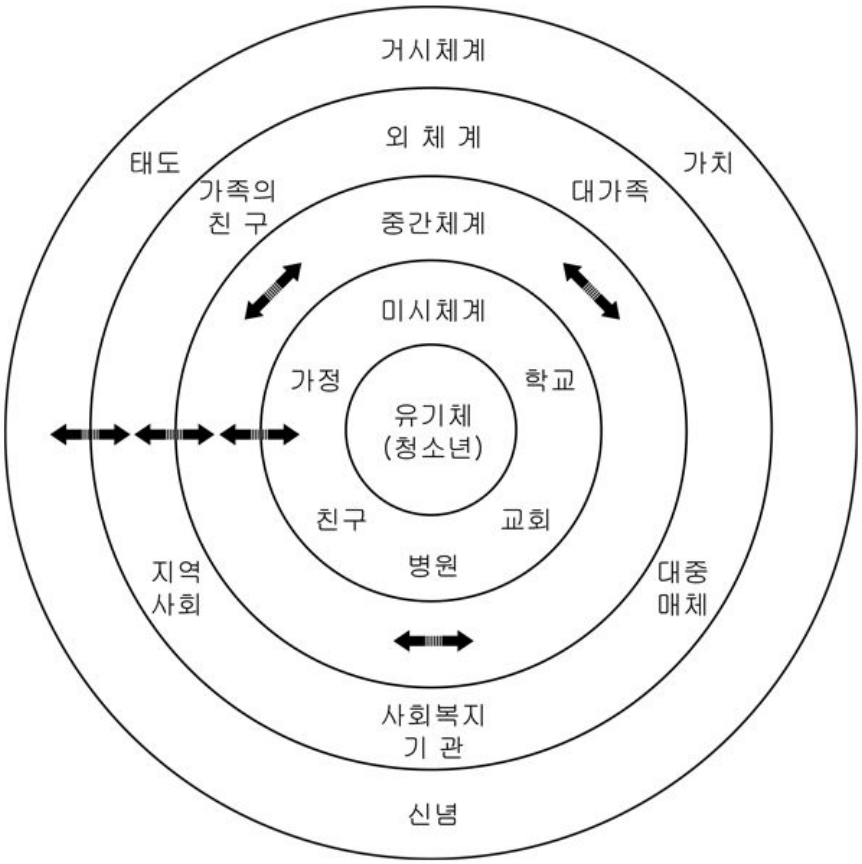
인간의 발달에 생태학을 적용한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의 관심은 성장하는 인간 유기체와 그가 살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사이에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것이다(1992).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서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 변화하는 환경간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조절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항상 변화하는 결과물로 보았다. 즉,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고, 항상 변화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연구에서 탈맥락적(development-out-of-context)이 아니라 맥락내(development-in-context)의 인간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onfenbrenner(1979)는 상호의존적, 동태적 겹구조 모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한 생태학적 환경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동시 적용되는 환경을 개념화 하였다. 환경 하나하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 환경들이 더 큰 체계를 이루

Collection @ chosun

며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발달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겹구조물(Nested-system model)에 적용된 개념적 용어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누어 그 체계 간 역동성을 개인의 삶과 관련지었고,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 모형
(Hetherington, E.M & Parke, R.D.(1993). Childe Psycology ;
A Contemporary Viewpoint, N.Y.; McGraw-Hill)

첫째, 미시체계는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친밀한 사회 환경 안에서 겪게 되는 상황과 직접 접촉하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미시체계는 성장하는 개체가 특정 대면 상황에서 경험하는

dCollection @ chosun

활동, 역할,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이다(Bronfenbrenner, 1993). 미시체계는 개인에 따라, 그 개인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생애초기에는 집, 가족에서 놀이터, 학교, 또래친구, 교회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가족, 학교, 운동 팀, 동아리. 또래집단, 교회, 이웃 사람들로 청소년들은 이들과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상호교류를 갖는다. 이러한 미시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형제와의 관계인데(Bronfenbrenner, 1979)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미시체계 중 매우 중요한 이원체계로 설명된다.

둘째, 중간체계는 한 사람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하게 겹쳐져 상호 작용하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망으로 구성된 가정과 학교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간의 관계로 미시체계 각각에 존재하는 발달 촉진적, 저해적 특징과 과정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상승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92).

셋째, 외체계는 중간체계가 확장된 것으로써 유기체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체계이지만 유기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로, 부모의 직업, 근무조건, 이웃, 정부기관,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기회 등은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하위문화의 이념 및 제도의 유형으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같은 커다란 체계를 말하며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거시체계는 규칙, 규범, 기대, 가치, 역사 등을 말하며 문화적, 법률적, 종교적, 교육적 가치와 공공정책의 핵심을 구성한다.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약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으며, 거시체계가 가지는 시대정신이나 풍토는 청소년의 신념과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1979). 개인과 그 주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문제는 공동체적인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Warf, 1988).

2. 생태체계 관점의 유용성

생태학점 관점은 일부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타 학문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 되었다(Compton & Galaway, 1999; Zastrow, 2003). 아동·청소년문제나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해 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문제의 한 단면이나 증상만을 보지

Collection @ chosun

말고 다중체계를 고려하여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Pecora et al., 2000; Zastrow, 2003). Fraser(1997)는 아동학대의 연구를 위한 다체계론적 생태학적 관점을 개발하였다.

Fraser의 생태학적 관점은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의 심리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특성 둘째, 가족・학교・지역사회 셋째, 보다 광범위한 환경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형모(2000)는 생태학적 관점을 이용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의 분석틀로써 Fraser의 생태학적 관점을 변형하고 Bronfenbrenner, Belsky, Garbarino의 생태학적 관점을 보완하여 네 영역으로 구성된 생태학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김형모의 생태학적 관점은 첫째, 아동영역, 둘째, 부모영역, 셋째, 가족영역, 넷째, 지역사회영역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형모, 2004). 류진아(2003)와 권윤희(2005)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Bronfenbrenner의 생태환경체계 분류에의하여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으로 분류하였고, 이지항(2005)은 생태체계를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인터넷환경 변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Lerner(1991)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들의 발달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송명자(1998)도 생태학적 모형은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 거시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특히 생태체계이론은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환경 등 다양한 환경체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생태학적 환경체계의 틀 안에서 인터넷 중독과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유용하다. 청소년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발생된 문제행동 역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지닌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 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체계별로 요인을 추출한 뒤 개인적 요인, 가정적요인, 학교요인, 인터넷환경 요인, 및 인터넷 중독의 결과인 정신건강으로 나누

Collection @ chosun

고 각각의 체계에 해당하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제 3 절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1. 개인적 요인

1) 성별

인터넷 중독의 성별차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한다. 남자 청소년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며, 여자 청소년은 이메일이나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장재홍 외, 2002 ; Gallup, 1982 ; Griffiths, 1997)으로 보고되고 있다. Young(1996)의 연구에서 여자 피험자 239명, 남자피험자 157명이 참여한 경우를 대부분 남자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derson(1999)은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남자 649명, 여자 647명으로 대상자 성비가 잘 통제된 연구를 수행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자 93명, 여자 13명이 중독자로 보고됨으로써 절대적인 수에 있어 중독자에 남성이 많음이 나타났다(송명준, 허유정, 이은정, 권정혜, 2000). 따라서 기계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친숙감문제, 남녀 정보화의 불평등문제, 서구와는 달리 인터넷사용에 남녀차가 적은 우리나라 현실 등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인터넷 중독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이계원, 2001). 중학생과 고등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모형을 개발한 조영란과 이화자(2004)는 성별이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dCollection @ chosun

2)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유기체의 적응과 조절에 가해진 압력이나 외부의 요구적인 힘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긴장, 피로, 탈진, 어려움, 곤란, 역경, 또는 고생을 뜻하는 다의적인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류수영, 1993) 처음에는 신체적 및 화학적 변화와 같은 객관적 지표에 기초를 두고 스트레스를 비 특정적인 요구에 대한 신체의 반응으로 보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세 가지 수준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 주요 생활 사건들, 일상의 사건 및 자질구레한 일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경우 인종차별, 소음, 혼잡스러움, 가난한 삶의 여건 등이 포함된다. 주요생활 사건들은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 이혼, 결혼 퇴직 등의 스트레스가 있다. 자질구레한 일은 교통 체중, 나쁜 날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일상의 사건이나 자질구레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들보다 더 자주 일어나며 주요생활사건보다 적응이 더 어렵다.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과 스트레스를 관련시킨 선행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해서는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인터넷의 병리적사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인터넷 이용결과에 대한 기대,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을 조사한 이시형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사용집단을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 위험군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독 위험군이 비 위험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을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를 지각하는 청소년이 가진 환경과 대처능력 등에 따라서 중독성향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노수원(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과 비중독 집단의 전체 스트레스 차이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 중독인 경우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수행형태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실시하고 조직하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Bandura, 1986), 과제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측정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따라 역할 수행을 잘하기도 하고 뒤쳐지기도 한다(Bandura, 1982).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이정연 · 최영선, 2002; 이인숙, 2003). 송원영(1998)은 현실세계에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에 대한 중독적 사용경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윤희(20030는 인터넷 중독정도는 자기효능감,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터넷 중독정도,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두 변수가 2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장애에 부딪쳤을 때나 실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중독의 초기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andura, 1977). 가상공간에서의 활동 역시 인간행동의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자기효능감 즉 가상공간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가상공간의 사용이 자신에게 충분히 강화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 현실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세계에 더 많은 활동과 참여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전자에게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후자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고, 이들은 각자 자신의 강화를 얻는 세계에 더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송원영(1998)은 자기 통제력과 함께 개인적 효능감과 대인관계 효능감이 인터넷

Collection @ chosun

중독을 설명하는 변인이라 하였으며 이정연과 그의 동료(2002)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물입 되는 경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2. 가정적 요인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형성하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가 중심이 된다. 개인 간 의사소통이 개인들의 관계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듯이 가족원간의의사소통은 가족생활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 할 뿐 아니라 그 가족 특유의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가족 내 의사소통은 가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주요 차원이며,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매개체 가운데 중요한 의사소통이다(장호선, 2000)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도 의사소통은 사회적 성숙과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부모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적 행동 형성과정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적 행동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자녀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자녀에게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압력으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형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자녀는 자기방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특성을 형성하게 된다(정명희, 1987).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해서 인터넷을 이상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은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가정에서의 공부에 지장을 주어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소원해

Collection @ chosun

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어 가족간의 소외감이 생기게 된다(이명숙,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부모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고(조춘범, 2001)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때 부모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면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는 관심과 애정의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채우려고 더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다(김연화, 2005).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지항(2005)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변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조절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강경호(2002)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고 대화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 대신 컴퓨터를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긍정적인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정경란, 2002 ; 정민희, 2003). 이와 관련하여 정경란(2002)은 가족의 기능적 환경변인 중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라 함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을 말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제한적·비관적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낮고,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일관성이 있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일반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aumrind & Block, 1967).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실제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소년 중독자들은 부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호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아동은 학교와 사춘기의 방황, 가족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며 인터넷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

dCollection @ chosun

육태도가 비합리적(박정은, 2001)이고 비성취적(오현화, 2002)이며 거부-통제적(류진아, 2004)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지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았고 적대 지향적으로 지각할 때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다(정진태, 2003).

조춘범(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일수록, 부모와의 갈등 관계가 없는 청소년들인 경우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탈출구로서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류진아, 2003).

Baumrind(1991)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부모의 행동이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등 내재화된 문제와 의미있게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심리적 통제를 과도하게 받은 아동은 심리적 자율성발달이 손상되어 내재화된 문제를 경험하고, 행동적 규제가 불충분한 아동은 기물파괴, 폭력 등 외현화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비일관적 훈육, 심한 체벌, 무분별한 분노표현, 무조건적 복종과 같은 강압적 양육에 의한 부적절한 사회화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언어적 표현의 억압 죄의식유발, 인격적 공격 등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 자살기도와 같은 보다 내재화된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계원(200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는 긍정적 양육태도에 속한다고 보는 애정, 합리적 설명보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등의 요인이 인터넷 중독과 더 많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전반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요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해 과잉기대를 하는 경우 역시 인터넷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제시하며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성취압력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에서는 부모가 청소년들의 생활을 제한하고 시간관리를 해줄수록 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방치, 과잉기대가 높고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통제력은 낮다. 부모의 방치 및 과잉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하고 독단적인 태도보다 자녀의의견이나 인격을 존중하

Collection @ chosun

고 대화로써 해결하려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였다(이계원, 2001; 조춘범, 2001).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사랑과 지지를 베풀지 않고,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함으로써 자녀가 혼자서 방치되는 시간이 늘게 되면 이로 인해 자녀는 나름대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속에서라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더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더 깊게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적절한 관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애정과 관심은 매우 중요하며, 자녀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 될 가능성이 낮으며, 부모의 무관심으로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없고 비난과 훈계를 자주 하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를 불신하고 반항하며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학교요인

1) 교사의 지지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성인으로써,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차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신념・가치・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손정영, 1988).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유대, 교사의 인성적 특성, 가치관 학습동기 증진에 대한 태도 지적성취에 대한 열의, 지식 등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수여,2003; 김은화, 2005).

한편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지도는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 행태 및 중독 성향에 영향을 준다(이선애, 2001).

한복희(2001)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계원(2001)은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Collection @ chosun

청소년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교사는 청소년기의 비행 및 우울 발생의 억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부적절할 때 교사의 기능이 비행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ntrock, 1996)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대하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도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구자은, 2000 ; 최지은 외, 2003 ; 임유진, 2001)고 보고 된 바 있다. 학생들이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성원과 동료들(2004)은 표집된 일선교사의 71%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많은 교사들이 전문지식 부족과 자료 부족 등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교사의 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과 긍정적 기대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사의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친구의 지지

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는 또래나 친구들이의미 있는 타자로 여겨지기에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소속이나 인정을 중요시 여기므로 친구압력 또한 중요한 강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친구압력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친구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인터넷에 중독 될 확률이 증가하였다.(이혜진, 200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수정(2000)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정서·평가·물질적 지지에서 인터넷 중독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친구의 평가적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범(2001)의 연구에서는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우와의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영향이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남윤주(2003)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이용 변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친구 변수보다

Collection @ chosun

통신 친구 변수가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스트레스를 해소 할 때 만나는 친구, 기능(도움, 갈등) 만족도에 따라 중독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변수 중에서는 사용 빈도, 한번 인터넷을 시작하면 걸리는 시간, 인터넷 평균사용시간, 이용목적, 주접속요일, 이용장점, 이용유형 변수 간에 중독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 한번 인터넷을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집단,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이 많은 집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집단, 인터넷에서 주로 게임을 즐기는 집단이 인터넷 중독성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한편 인터넷 중독정도와 친구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박영선, 2001 ; 팽현기, 2003 ; 윤재희, 1998 ; 김윤희, 2004)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군이 인터넷 정상 사용군에 비해 소외감을 높게 경험하며 우울, 불안, 강박증의 정신병리 점수가 높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김윤희(2004)는 인터넷 중증 중독군 청소년이 인터넷 정상 사용군보다 친구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친구와 어울려 노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다는 친구관계 갈등 심리를 지적 했으며 인터넷 중중 중독군 청소년이 인터넷 정상 사용군보다 정신건강 척도 중 우울, 강박증 및 대인예민성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 했다. 박영숙(1999)은 우울과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 인터넷에 몰입하고 인터넷에 활용 영역이 주로 대화방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 인터넷에 몰입하는 사람의 친구관계 특성으로는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우울과 충동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지내는 시간보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성중, 2000).

이시형(2000)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친구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군이 비위험군보다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친구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친구 지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친구의 지지는 남여 청소년 모두에게 학교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정신적, 신체적 증상의 위험률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정동화, 1996 ; Natvig et al., 1999)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오락의 차원

Collection @ chosun

을 넘어서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친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학업 성취감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Hirschi, 1969), Hawkins 와 Lishner(1987)는 학업성취의 부진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을 낮게 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며 결국 비행으로 연결된다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속으로 쉽게 도피하게 되고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소년 상담이나 학교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특히 게임, 오락, 통신(채팅) 및 음란 사이트 접속, PC방 출입과 이로 인한 학업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 가출, 자퇴, 등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학부모 및 교사의 호소, 임상가와 연구자들의 보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성호(1993)와 김현수(2000)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바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실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주장과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송명준· 권정혜(2000)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폭력적인 인터넷에 중독되어 보복이라는 대리만족의 욕구 출구로써 인터넷 게임이 작용되었고 이것이 학교중퇴와 가출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학교부적응이 인터넷 중독을 가져오고 인터넷 중독이 다시 학교부적응의 심화를 가져와 결국 학교부적응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로 학교중퇴 및 가출 이외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폐해는 성적하락, 폭력, 부모관계 악화 등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1990)는 인터넷 중독경향집단과 정상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 경향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학교생활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 적응

Collection @ chosun

의 모든 하위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인터넷 중독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에 있어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와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가 떨어지고, 친구에 대한 관심과 학급생활에 대한 적극성이 낮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행동하는 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가져옴으로서 학업, 직업, 인간관계 및 개인의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Brenner, 1997; Young, 1999; 송병준・권정혜,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더라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인터넷 중독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폭력 게임에 더 많이 중독되었으며(이해경, 2002), 인터넷 중독 집단이 성적부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아, 2001). 즉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낮은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인터넷에 더 몰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중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정상 인터넷 사용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수준이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권구영・ 이혜자, 2002; 김윤희, 2002; 김혜정, 2003). 김윤희(2003)는 학업성적이 열등할수록 인터넷 중증 중독현상이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증상이 높음을 보고한바 있다.

4. 인터넷 환경변인

1)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문제의 이해 및 치료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는 인터넷 기대, 즉 인터넷 이용 결과에 대한 기대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시형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의 하위 요인인 갈등 해소, 자신감 획득, 정보 획득, 인

Collection @ chosun

간관계 증진 중 갈등 해소가 인터넷 중독 변량의 33.4%를 설명해 설득력이 가장 높았고, 자신감 획득이 3.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결과는 중독증에 빠지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내외적 긴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심리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심리내적 구조 대신에 중독적 행동이 내외적 긴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대신한다는 Mentzos(1982)의 설명과도 관련이 있다.

인터넷을 자신의 욕구충족이나 갈등해소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현실에서의 욕구충족이나 갈등해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을 현실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몰두할 때에는 스트레스나 현실 문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인터넷에 몰두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현실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인터넷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터넷 중독자들의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회피하게 만듦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면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고 인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더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존감 회복의 욕구가 인터넷 중독증의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된다. 반면 인터넷을 정보 획득이나 인간관계 증진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없었다(이시형 외 2000). 또한 오현화(2002)의 연구에서도 학업, 부모 또는 친구와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를 증진하고 손상된 자아를 가상세계를 통해 만회하고 자신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터넷의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접근성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거리,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 동기와 인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김영종, 1998) 접근가능성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비용이 싸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어느 때든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성규탁, 1993).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지에 관한 접근성은 시간과 공간이 고려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대상이 느끼는

Collection @ chosun

거리감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안석, 2000).

김형준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PC 방을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진아(2004)의 연구에서도 PC 방의 가용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높았다. 안석(2000)의 연구에서도 접근성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접근성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규칙을 정해두거나 혼자만 사용할 수 없도록 공개된 장소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PC 방 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임을 인식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익명성

익명성이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익명성(King, 1996;Young, 1997)을 들 수 있다. 익명성으로 인해 현실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성별 등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표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폭력적인 욕구 등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다(King et al., 1995 ; Suler, 1998). 이렇게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 속에서 현실의 고정적인 실체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러한 변화의 경험을 통해 통제감과 우월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옥순, 홍혜영, 1998).

Young(1999)은 익명성은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문란한 성행동이나 불법적인 행동 등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으며, 둘째,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적인 상황에서만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셋째,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실직, 대인관계 갈등 등과 같은 개인적

Collection @ chosun

인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Curtis(1992)는 익명성을 사이버 자기의 창출과 그로 인한 열망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ID를 필요로 하고 익명성은 그 배경이 된다. 여기에서 ID를 만드는 과정이 사이버 자기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열망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현수(2002)는 개인의 정체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했던 개인의 정체성 변화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성이야 말로 인터넷으로 인한 심리적·행동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익명성과 관련하여 최근의 인터넷 이용 행태는 인터넷이 막 소개 되었던 90년대의 중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동우(2004)는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자기를 들어내고 주목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인터넷 상황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장훈(2004)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싸이월드나 블로그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참여해오던 인터넷 활동이 보여주는 주체로의 활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신을 공개하고 싶다는 노출증과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다는 호기심 등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한다고 하였다. 이봉건(1999)은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 볼 수 있다는데 보상을 느끼며, 접속자는 자존심을 임의로 높일 수도 있고 다른 미지의 접속자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걸리기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제 4 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역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처럼 중독 될 수 있다는 연구가 Young(1996)에 의해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1995년 이후로 인터넷 중독에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ldberg는 1996년에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말을 처음 언급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인터넷 중독은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자마다 자신이 만든 진단준거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정의하였으며, 관계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미한 장애로 보고 있다. Young(1996b)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서 직업적, 학습적,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코올 중독이나 충동적 도박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 상실, 갈망과 내성 증상, 학업실패 등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또한 Stein(1997)도 인터넷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현실적 관계가 가상적 관계로 대치되어 정서불안과 심리적 고통이 나타나는 일종의 금단증상이라고 하였다.

Davis(2001)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인지-행동적 모형에서 인터넷 중독 증상에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리 요인(Proximal contributory causes)과 먼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원거리 요인(distal contributory causes)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개인이 병리적 인터넷 사용에 이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Davis의 모형에서 말하는 근거리 요인은 부적응 인지를 말하며 부적응 인지는 2가지 주요 하위유형과 세상에 대한 사고로 나누어지며 자기에 대한 사고에는 반추적인 사고양식, 자기의심, 낮은 자기효능감, 부정적인 자기평가 등의 인지적 왜곡이 포함되며 사회적 불안감을 지적하였다.

이계원(2001)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 및 경기지역 중고, 대학 남녀 재학 중인 71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심리사회적 변인인 개인

Collection @ chosun

적 특성(자아존중감,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부모로부터의 지지, 교사로부터 지지, 친구로부터의 지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및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집단에서는 중고생집단과는 달리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경향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방치,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과잉기대, 자기존중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란(2003)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에서 부산과 울산지역 중, 고등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외생변수로 하고 충동성, 외로움을 매개변수로 하여 인터넷 중독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및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매개변수인 충동성에 의하여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우와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우,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가장 큰 요인은 성별, 가족지지, 외로움,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순이었다.

권윤희(2005)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측모형 구축'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이론을 토대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유기체 요인을 선정하여 명제를 구성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혼자 있는 시간, 미시체계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지지, 학교적응, 교사의 지지, 또래의 지지, 중간체계 요인으로 인터넷 게임에 대한 부모의 통제, 인터넷 게임에 대한 교사의 통제, 외체계 요인으로 인터넷 가용성, 거시체계 요인으로 매스미디어 영향, 유기체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충동성, 사회성을 설정하였으며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영향력 있는 변수는 혼자 있는 시간, 가족지지, 학교적응, 또래의 지지, 교사의 지지, 인터넷 게임에 대한 부모의 통제, 인터넷 가용성, 매스미디어 영향, 자기효능감에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예측변수들의 설명력은 68.5%이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수는 매스미디어 영향과 혼자 있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지항(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 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에서 인터넷 환경변인(인터넷 사용량, 가상공간에서의 현실

Collection @ chosun

지각수준, 익명성)을 독립변인으로 개인적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가정환경변인(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의 지지)학교환경변인(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학교생활적응)을 중재변인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남자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욱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성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익명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인터넷 사용자가 초창기와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변인에서 자기효능감은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였다. 가정환경변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요인은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였으며 학교환경 변인에서는 친구의 지지, 학교생활적응, 교사와의 관계, 수업에의 적응은 남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의 지지는 가상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였다.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상공간의 현실지각수준과 교사의지지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수준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희(2005)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모형구축'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개인관련요인(자기효능감, 소외감, 자기통제력), 가정관련요인(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친밀도, 부모감독), 사이버비행, 인터넷 중독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통제력, 소외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친밀도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부적 관계가 있으며 친구관련요인은 사이버 비행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소극적이고 친구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중상이 심할수록 불안감,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나타내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관련요인, 가정관련요인 및 사이버비행과 인터넷 중독이며 학교관련요인, 친구관련요인은 사이버비행과 인터넷 중독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심옥녀(2008)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변인(인구학적 변인, 심리 성격적 변인), 사회변인(가정변인, 학교변인, 또래변인), 인터넷 변인(이용변인, 심리변인, 환경변인)으로 나누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개인변인 중에서는 성,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충동성, 우울이 대학생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은 인터넷 중독이 높았고,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충동성과 우울경향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높았다. 사회변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인터넷 통제, 학업성적, 친구의 지향성, 또래압력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변인에서는 시간, 유형, 인터넷 기대,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수준, 자아존중감, 유형, 자기통제력, 시간,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수준(지각된 현실감, 매개된 실재감), 가상공간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개인적 효능감, 대인관계 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인터넷 기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시간,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수준 중 지각된 현실감, 우울 경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았다.

한기홍(2008)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남자고등학생은 우울, 여자 고등학생은 자기존중감과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된 집단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 보다 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부모-자녀의 사소통을 경험하였으며 불안과 우울을 경험 할 뿐 아니라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자 대학생은 우울, 사회적 회피, 불안,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 여자 대학생들은 사회적 회피 및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를 요인별, 하위변인별로 분류하면 <표2-2>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표2-2>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요인	하위변인	이론적 근거 및 연구자
인터넷 관련요인	인터넷기대, 인터넷 사용시간, 접근성,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에 대한태도 인터넷 활용기술	King(1996) Young(1996) 이계원(2001). 심옥녀(2008) 이지항(2005)
개인요인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 익명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인예민성, 외로움, 자기효능감	Young(1999) Davis(2001) 조영란(2003), 한기홍(2008) 이계원(2001), 권윤희(2005)
가족요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인터넷 사용능력, 부모의 방치 부모양육태도, 가족의 지지	Young(1998), 이계원(2001), 이지항(2005), 김윤희(2005) 한기홍(2008), 심옥녀(2008)
학교요인	교사지지, 또래압력, 학교환경 친구지지, 학교공부, 학업성적	king(1996), 심옥녀(2008) 한기홍(2008), 조영란(2003) 이지항(2005)
정신건강	신체화, 대인기피증, 적대감, 정신증, 편집증, 불안, 대인예민성, 강박증, 우울	Young(1996), Davis(2001) 김윤희(2005), 한기홍(2008) 심옥녀(2008)

2. 선행연구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의 개념과 진단, 인터넷 중독의 결과,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저하, 부부간의 불화, 직업적, 심리적, 회사에서의 직무소홀 등 실제생활에서의 문제들과 신체적으로 수면장애, 육체적 질병 등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개인적·심리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감정조절, 사회불안 수준, 자기존중감, 우울, 외로움, 감각추구성향,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낮은 자기통제력, 공격성, 가족지지, 접근성, 스트레스, 부모양육행동, 의사소통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요인과 기타 환경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Collection @ chosun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자체와 관련된 인터넷 환경변인들을 제외한 개인적·가정적·학교요인들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인터넷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절변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등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에 취약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등을 단순히 독립변수로서가 아니라 조절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수들 간 인과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요인만을 독립변수로 보고 기타 환경변인들 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관련 변수들과 통합한 인과모형을 작성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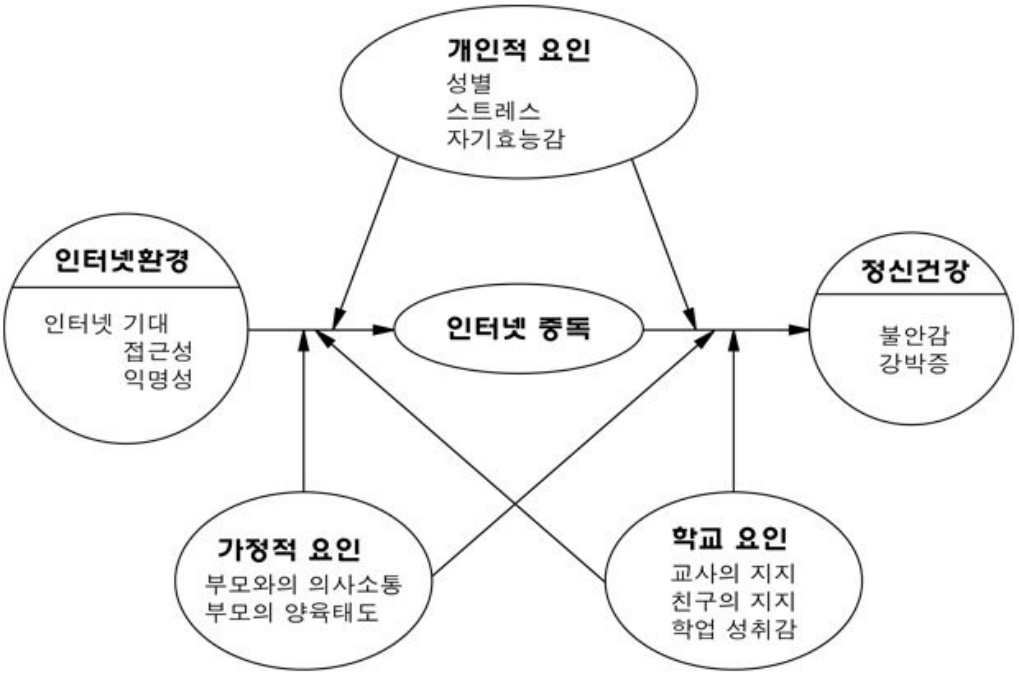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 변인들이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인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타 환경요인들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변수로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인터넷 환경 변인으로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등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 인터넷 환경 변인으로 인터넷 이용경력과 시간, 인터넷 사용 장소, 컨텐츠의 다양성 정도, 인터넷 기대, 익명성 정도, 인터넷 접근성,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수준 등이 언급되어 왔으나, 인터넷 사용 장소나 컨텐츠의 다양성 정도는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등만을 인터넷 환경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조절변수의 선정은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을 선정하였으며 가정적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선정하였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 성취감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조절변수로 선정하게 된 것은 동일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에 따라 인터넷 중독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 관련 환경 변인들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지만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 및 학교환경은 각 청소년 마다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셋째, 종속변수로는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선정하였다. 정신건강은 다시 불안감과 강박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가설 1. 인터넷 기대는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인터넷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

dCollection @ chosun

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인터넷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인터넷 중독은 불안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인터넷 중독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인터넷 중독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3 인터넷 중독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인터넷 중독은 강박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5-2.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5-3.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제 3 절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터넷 중독척도, 인터넷환경(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척도, 개인적 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척도, 가정적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척도, 학교 요인(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성취감)척도, 정신건강(불안감, 강박증)척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되었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정과 동료들(2003)이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번역·수정하여 제작한「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부정적 결과, 내성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①의존성: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이나 행동반응을 말한다.
자각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을 지속하게 하는 정서적인 욕망까지도 포함한다.

② 금단증상: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량이 감소할 경우 유발되는 불편한 감정이나 신체적인 결과

③ 부정적인 결과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신체적·심리적·학업적영역과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겪게 되는 문제나 장애

④ 내성: 인터넷을 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Collection @ chosun

2. 인터넷 환경

1) 인터넷 기대

인터넷을 이용한 후 기대감을 측정하고자 이시형 등(2000)이 제작한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68이었다.

2) 접근성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접근성 척도는 Riner(1998)가 개발하여 박민정(2002)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이숙진(2007)이 제작한 지역사회환경 척도를 사용하였고 지역사회의 유해시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성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65이었다.

3) 익명성

익명성 사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지현(2003)이 번역한 Lee(1996)의 익명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별과 나이, 전자우편 주소에 대해 실제 사실을 밝히는지 여부에 대한 각각 2문항씩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익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44이었다.

3. 개인적 요인

1) 스트레스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 도

Collection @ chosun

구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0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현숙(1998)이 번역한 Maddux와 Sherer(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 중 5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92 이였다.

4. 가정적 요인

1)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그의 동료(1982)가 제작한 부모-자녀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 (Adolescent Form)를 노길미(1998)가 수정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10문항 중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24 이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이승국(1998)이 제작한 척도를 최효순(2002)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의 2가지 차원으로 측정하며 18문항 중 4 문항을 사용하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33이었다.

Collection @ chosun

5. 학교요인

1)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감정적인 유대와 교사의 관심도에 대한 학생의 지각정도를 의미하며(Hirschi, 1969),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a)과 Riner(1998)가 개발한 것을 통합하여 김명자(2002)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0이었다.

2) 친구의 지지

친구의 지지란 사회행동을 모방하는 비슷한 나이의 영향력으로(Riner, 1998), 권미연(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강하게 받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62이었다.

3) 학업성취감

학업성취감은 공부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며(정선경, 1998), 정선경(1998)이 개발한 것을 김명자(2002)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67이었다.

6.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균형있게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하며(Hinsic & Campbell, 1970) 김광일과 김재환(1984)의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를

Collection @ chosun

사용하였다. 불안감 6문항과 강박증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불안감 .877, 강박증 .868이었다.

Collection @ chosun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설문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과 무작위표본 추출(judgement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8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3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70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예비조사[1]는 100부의 설문지를 광주광역시의 5개 구에 각각 20부씩 배포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요인들을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설문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14.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측정도구 검증과 특성별 차이분석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6.0을 활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한 설문결과로 설문문항들에 대한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표 4-2>와 <표 4-3>과 같이 확인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한 표본의 특성조사와 기술통계량분석으로 기술통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의 측정을 통한 전체 표본의 변수들에 대한 지각수준 평가, t-test 및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통한 Pearson 상관계수의 산출로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AMOS 6.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

1) 예비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설문문항의의미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설문대상 집단과 유사한 소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대개 25-75개의 표본을 가지고 실시하는 예비조사는 설문항목의 내용, 형식, 양식, 표현, 배치순서 등을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경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Converse & Presser, 1986 :pp.54-65). 또한 예비조사의 가치는 설문항목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있으며, 전문적 판단이나 지적활동의 어떠한 것도 예비조사를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꼭 필요하다(McDaniel & Gates, 1995: 301).

Collection @ chosun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고등학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설문응답자는 539명으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539명 가운데 남학생이 371명(68.8%), 여학생은168명(31.2%) 으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16세 11명(2.0%), 17세 64명(11.9%), 18세 206명(8.2%), 19세 이상 258명(47.9%)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있어서는 전문계고교가 262명(48.6%), 인문계고교가 277명(51.4%)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 61명(11.3%), 2학년 184명(34.1%), 3학년 294명 (54.6%)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기간은 4년 이상 된 학생이 96.3%(519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이 0.6%(3명)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 이용 장소는 자기 집이(494명) 9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친구 집이 4명(0.7%), PC방이 39명(7.2%)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거실이 228명 (42.3%), 자기방 188명 (34.9%), 안방 33명(6.1%), 형제, 자매방 61명(11.3%) 서재 및 가족공용 공부방 28명 (5.2%)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명(0.7%), 조금 어렵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명(1.5%)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주일에 3-4일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2%로 학생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6%의 청소년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시간에 있어서는 하루평균 3시간이상~4시간미만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로 나타났으며 평일기준유형은 18.9%로 나타났고 주말 기준유형이 36.4%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시간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49.9%로 나타났으며 1주일 동안 인터넷 사용 시간에 있어서 2시간미만은 38명(7.1%), 2시간이상~6시간미만은 138명(25.6%), 7시간이상~10시간미만은 117명(21.7%), 11시간 이상~15시간미만은 107명(19.9%), 15시간 이상 137명(25.4%)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3)

구 분	내 용	빈 도(명)	비 율(%)
성 별	남 학 생	371	68.8
	여 학 생	168	31.2
	계	100.0	100.0
연 령	16세	11	2.0
	17세	64	11.9
	18세	206	38.2
	19세 이상	258	47.9
	계	539	100.0
학 교	전문계 고교	262	48.6
	인문계 고교	277	51.4
	계	539	100.0
학 년	1학년	61	11.3
	2학년	184	34.1
	3학년	294	54.6
	계	539	100.0
거주지	광주광역시	224	52.2
	전라남도	205	47.8
	계	429	100.0
이용기간	1년 미만	3	0.6
	1년 이상 ~ 2년 미만	2	0.4
	2년 이상 ~ 3년 미만	2	0.4
	3년 이상 ~ 4년 미만	11	2.0
	4년 이상	519	96.3
	결 측 값	2	0.4
	계	539	100.0
이용장소	자기 집	494	91.7
	친구 집	4	0.7
	PC방	39	7.2
	학 교	1	0.2
	기 타	-	-
	결 측 값	1	0.2
	계	539	100.0

Collection @ chosun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3)

구 분	내 용	빈 도(명)	비 율(%)
설치장소	자기 방	188	34.9
	거 실	228	42.3
	안 방	33	6.1
	형제, 자매 방	61	11.3
	서재 및 가족공용 공부방	28	5.2
	결 측 값	1	0.2
	계	539	100.0
이용용이	매우 어렵다	4	0.7
	조금 어렵다	8	1.5
	보통이다	95	17.6
	조금 쉽다	88	16.3
	매우 쉽다	343	63.6
	결 측 값	1	0.2
	계		100.0
이용횟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4	2.6
	1주일에 1~2일	40	7.4
	1주일에 3~4일	81	15.0
	1주일에 5~6일	67	12.4
	거의 매일한다	334	62.0
	결 측 값	3	0.6
	계	539	100.0
이용시간/1회	30분미만	16	3.0
	30분 이상~1시간 미만	82	15.2
	1시간이상~2시간 미만	178	33.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41	26.2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21	22.4
	결 측 값	1	0.2
	계	539	100.0

Collection @ chosun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3/3)

구 분	내 용	빈 도(명)	비 율(%)
평일기준	30분 미만	39	7.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94	17.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70	31.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31	24.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02	18.9
	결 측 값	3	0.6
	계	539	100.0
주말기준	30분 미만	29	5.4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61	11.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14	21.2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37	25.4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96	36.4
	결 측 값	2	0.4
	계	539	100.0
하루평균	30분 미만	29	5.4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73	13.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66	30.8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42	26.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27	23.6
	결 측 값	2	0.4
	계	539	100.0
사용시간 /1주	2시간 미만	38	7.1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38	25.6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17	21.7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07	19.9
	15시간 이상	137	25.4
	결 측 값	2	0.4
	계	539	100.0

Collection @ chosun

제 2 절 측정도구 검증

1. 인터넷 중독

1)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정과 동료들(2003)이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부정적 결과, 내성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Cronbach α계수를 구하여 봄으로써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① 어떤 대상을 놓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② 측정방법이 명확하여 믿을만하고, ③ 예측가능성이 있고, ④ 어떤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Kerlinger, 1973). 여기서 ①의 경우는 시간의 제약 등으로 검증이 불가능하였고, ②와 ③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측정도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고, ④에 대해서는 다항목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Cronbach α계수를 구하여 측정하였다. SPSS 14.0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을 의존성, 금단증상, 부정적인 결과, 내성 등 20개 문항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계수가 0.799로 신뢰도 분석의 일반적인 기준치인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요인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은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측정도구의 타당도에는 내용적 타당도(content validity), 예측적 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개념적 타당도(construct validity) 및 외적 타당도(externmal validity) 등이 있으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적 타당도이다. 개념적 타당도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해당변수가 제대로 측정되었는가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적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이 많이 활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MO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이학식·임지훈, 2007).

Collection @ chosun

확인적 요인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모형 검증결과로 도출된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는 <표 4-2>와 같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1012.007, 자유도는 170, χ^2에 대한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고, RMR(원소간평균차이)은 0.041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고, RMSEA(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값은 0.069로 0.08이하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에 대한 표준요인부하량이 0.7이상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 값
인터넷 중독	v1	.948	.783	.080	11.860***
	v2	.809	.790	.079	10.217***
	v3	.834	.780	.071	11.807***
	v4	.574	.750	.076	7.536***
	v5	.951	.791	.079	11.984***
	v6	1.089	.866	.082	13.227***
	v7	.686	.744	.073	9.357***
	v8	1.076	.768	.081	13.259***
	v9	.772	.748	.142	5.432***
	v10	.972	.719	.084	11.602***
	v11	1.057	.798	.088	11.960***
	v12	1.235	.733	.087	14.528***
	v13	1.047	.756	.091	11.567***
	v14	.925	.759	.081	11.423***
	v15	1.019	.869	.075	13.581***
	v16	1.104	.789	.091	12.117***
	v17	.968	.741	.075	12.827***
	v18	1.113	.763	.084	13.189***
	v19	1.069	.796	.080	13.282***
	v20	1.000	.728	-	-
모형적합도 지수	χ^2(170)=1012.007, p= .000, GFI= .903,RMR= .041, NFI= .904, RFI= .901, IFI= .907, CFI= .906, AGFI= .900, RMSEM= .069				

Collection @ chosun

2. 인터넷 환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변인들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4-3>와 같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인터넷 환경변인들은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등 등 3개 요인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배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 항목으로 <표 4-3>와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등 5개의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인터넷 환경변인들의 측정도구는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인터넷 환경변인 측정도구의 검증결과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1. 인터넷 기대	v1	.804		
	v2	.749		
	v3	.776		
	v4	.860		
	v5	.705		
2. 접근성	v6		.760	
	v7		.804	
	v8		.791	
	v9		.679	
3. 익명성	v10			.846
	v11			.827
	v12			.682
	v13			.792
	v14			.817
	v15			.756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3.313 22.084 22.084	2.374 15.828 37.912	4.535 30.231 68.143
신뢰도 Cronbach Alpha		.868	.765	.844

Collection @ chosun

3.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4-4>와 같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정신건강은 불안감과 강박증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배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 항목으로 <표 4-4>와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불안감과 강박증 2개의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정신건강 측정도구의 검증

요인		요인1	요인2
1. 불안감	v21	.833	
	v22	.849	
	v23	.734	
	v24	.760	
	v25	.617	
	v26	.634	
2. 강박증	v27		.675
	v28		.624
	v29		.701
	v30		.661
	v31		.812
	v32		.713
	v33		.736
eigen value		4.074	3.734
분산비율(%)		31.340	28.723
누적비율(%)		31.340	60.063
신뢰도 Cronbach Alpha		.877	.868

dCollection @ chosun

4.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들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로 <표 4-5>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등 7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배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표 4-5>와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등 7개의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절변수의 측정도구들은 모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 4-5> 조절변수의 측정도구 검증결과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 스트레스	v1	.686						
	v2	.777						
	v3	.735						
	v4	.655						
	v5	.656						
2. 자기효능감	v6		.715					
	v7		.771					
	v8		.788					
	v9		.650					
	v10		.658					
3.의사소통	v11			.699				
	v12			.699				
	v13			.813				
	v14			.821				
	v15			.750				
4. 양육태도	v16				.640			
	v17				.726			
	v18				.705			
	v19				.735			
5. 교사지지	v20					.664		
	v21					.767		
	v22					.788		
	v23					.782		
6. 친구지지	v24						.740	
	v25						.819	
	v26						.787	
	v27						.749	
	v28						.689	
7. 학업성취감	v29							.695
	v30							.757
	v31							.710
	v32							.734
eigen value		2.745	2.881	2.953	2.404	2.514	3.327	2.396
분산비율(%)		8.607	9.004	9.228	7.514	7.858	10.397	7.488
누적비율(%)		8.607	17.611	26.839	34.353	42.211	52.608	60.096
신뢰도 Cronbach Alpha		.780	.792	.824	.733	.780	.862	.767

Collection @ chosun

제 3 절 기술적 통계량 분석

1. 단일변수의 기술통계량

1) 인터넷 중독 수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수준 분석결과 <표 4-6>과 같다. 설문응답자 539명에 대한 인터넷 중독 수준을 100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39명중 인터넷 중독 수준 분석결과 30점 미만은 84명(5.5%)으로 나타났고, 30점 이상 40점 미만은 132명(24.4%)으로 나타났으며,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159명(29.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중 50점 미만인 375명(69.4%)은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인터넷 중독 수준 분석

인터넷 중독 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비율(%)
30 미만	84	15.5	15.5
30 이상 ~ 40 미만	132	24.4	39.9
40 이상 ~ 50 미만	159	29.5	69.4
50 이상 ~ 60 미만	104	19.3	88.7
60 이상 ~ 70 미만	43	7.9	96.6
70 이상 ~ 80 미만	11	2.2	98.8
80 이상	6	1.2	100.0

그러나 50점 이상 60점 미만은 104명(19.3%)으로 나타났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43명(7.9%)으로 나타났으며,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11명(2.2%)로 나타났다. 따라서 50점 이상 80점 미만의 인터넷 중독이 우려되는 청소년 비율은 158명(29.4%)이고, 인터넷 중독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80점 이상은 6명(1.2%)으로

Collection @ chosun

전체 대상자중 50점 이상은 164명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수준이 우려할만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인터넷 환경변인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은 <표 4-7>와 같이 제시하였다.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왜도(Sk.)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 값들이 양(+)의 값의 경우에는 왼쪽에 모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지고 있고, 음(-)의 값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측 값들이 좌우로 늘어뜨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왜도를 통하여 관측 값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왜도에 대하여 자료의 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일 때는 Sk = 0이 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분포로 간주되는 Sk의 정확한 값은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도 다룰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Sk > +1.0 이거나 Sk > -1.0일 때는 정규분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김호정, 1998: 107-108).

인터넷 환경 변인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의 항목들은 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 값들이 주로 왼쪽에 모여 있어서 오른쪽으로 늘어뜨린 꼬리 모양의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 4-7> 인터넷 환경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변수	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1. 인터넷 기대	·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음	2.2375	.9617	.454	-.177
	·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김	2.0946	.8941	.455	-.271
	·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짐	2.3061	1.0333	.355	-.498
	·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음	2.1169	1.0070	.663	-.074
	·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됨.	2.0000	.9887	.834	.235
	합 산 평 균	2.1540	.7918	.434	.260
2. 접근성	·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전자오락실이 많이 있음	2.3896	1.1918	.528	-.599
	·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PC방이 많이 있음	3.2931	1.1945	-.410	-.656
	·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전자오락기가 있는 문구점이 많이 있음	2.7291	1.1920	.132	-.844
	·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술집이 많음	2.8534	1.2712	.119	-.949
	합 산 평 균	2.8163	.9290	.068	-.139
3. 익명성	· 나의 나이를 밝히지 않음	2.3302	1.1578	.522	-.678
	· 나의 성별을 밝히지 않음	2.1373	1.1307	.843	-.067
	· 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밝히지 않음	2.5751	1.2685	.311	-1.007
	· 나의 나이를 거짓으로 알려줌	1.9796	1.0300	.973	.357
	· 나의 성별을 거짓으로 알려줌	1.8256	.9865	1.253	1.209
	· 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거짓으로 알려줌	1.9740	1.0714	.989	.268
	합 산 평 균	2.1370	.8334	.498	.117

Collection @ chosun

3) 정신건강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의 항목들은 <표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 값들이 주로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표 4-8> 정신건강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

변수	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1. 불안감	· 머리가 아픔	2.6827	1.1558	.133	-.850
	·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됨	2.5677	1.0772	.254	-.571
	·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음	2.9388	1.1560	-.141	-.815
	·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남	2.5677	1.1473	.315	-.682
	·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2.7106	1.2154	.687	2.906
	·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임	2.5362	1.1504	.334	-.680
	합 산 평 균	2.6673	.9061	-.036	-.291
2. 강박증	· 혼자서 집을 나서기 두려움	1.8404	.9507	1.092	.826
	· 자책을 잘함	2.2839	1.1288	.484	-.634
	·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됨	2.1076	.9904	.532	-.380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함	2.1224	1.1175	.808	-.096
	·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1.9388	.9802	.848	.110
	·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낌	2.0297	1.0521	.931	.346
	·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낌	2.0631	1.1307	.844	-.155
	합 산 평 균	2.0551	.7860	.446	-.211

Collection @ chosun

4)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항목들은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 값들이 주로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료들의 비대칭도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9> 조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1/2)

변수	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1. 스트레스	· 나는 자주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한 적이 있음	3.0353	.9624	-.184	-.354
	· 나는 자주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 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음	2.8831	.9713	-.021	-.330
	· 나는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잘 느낌	2.8924	1.0380	-.014	-.566
	· 나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낌	2.8590	.9899	-.037	-.465
	· 나는 조절능력 밖의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음	3.0371	1.0358	-.094	-.422
	합 산 평 균	2.9414	.7291	-.131	.457
2. 자기효능감	·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함	3.1466	.9281	-.127	.061
	· 나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마칠 때까지 매달림	3.0148	.9444	.143	-.107
	· 나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함	2.9685	.9089	.032	-.010
	· 나는 작업 목표를 세운 후 실패하면 성공할 때 까지 노력함	3.0315	.9027	-.001	.120
	·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음	3.2560	.8842	-.071	.387
	합 산 평 균	3.0835	.6752	.184	1.147
3.의사소통	·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함	3.0872	1.0638	-.128	-.513
	·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심	3.4249	1.0290	-.490	-.014
	· 나는 부모님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의논을 잘함	2.9481	.9986	.014	-.245
	· 나는 부모님과 사소한 일이라도 이야기를 자주함	2.9759	1.1031	.031	-.602
	·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함	2.7532	1.0805	.157	-.477
	합 산 평 균	3.3078	.8089	-.043	.097

Collection @ chosun

<표 4-9> 조절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2/2)

변수	측 정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4. 양육태도	· 부모님께서 화가 나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심하게 벌을 줌	2.6122	1.1109	.197	-.723
	· 부모님은 나를 너무 어린애로 다루는 것 같음	2.6586	1.1481	.259	-.716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3.0019	1.1201	.028	-.578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함	2.6809	1.1577	.247	-.727
	합 산 평 균	2.7384	.8455	.176	.005
5. 교사지지	·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까움	2.8330	.9114	-.048	.288
	·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음	2.8998	.8164	-.205	.920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도와주심	3.1317	.8575	-.185	.530
	· 우리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심	3.1243	.9029	-.171	.364
	합 산 평 균	2.9972	.6775	-.328	1.364
6. 친구지지	· 친구들이 나를 좋아함	3.2672	.8287	.117	.541
	· 내 생각과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 줌	3.2987	.8258	-.087	.497
	· 나는 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	3.4323	.8385	-.402	.648
	·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	3.5455	.9162	-.331	.141
	·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줌	3.3711	.8727	-.342	.611
	합 산 평 균	3.3829	.6879	-.188	.982
7. 학업성취감	·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무척 중요함	3.3247	1.1210	-.252	-.511
	·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편임	3.0761	.9716	-.116	-.092
	·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낌	2.8386	.9216	-.089	.118
	·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함	3.2226	1.03407	-.132	-.145
	합 산 평 균	3.1155	.7787	-.368	.555

2. 특성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하여 성별, 학교, 연령, 학년, 사용경력, 이용 장소, 설치장소, 이용용이, 이용횟수, 이용시간, 평일기준, 주말기준, 하루평균, 사용시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Collection @ chosun

분산분석[2]은 독립변수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으로써 독립변수의 각 집단이 세 개 이상이며, 종속변수가 등간척도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 분산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 하나씩 일 때 사용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원분산분석, 그리고 여러 개인 다원분산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t 값 또는 F 값이 충분히 큰 경우 그 차이는 표본변동 때문이 아니라 실제의 차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두드러진다. F 검증은 세 집단 이상의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의 분산의 비율인 F 값이 임계치 이상으로 크거나 F 값의 p 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을 경우에 집단들 간에 평균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수준이 0.05보다 적으면 5%의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의 평균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교를 비교 할 때는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학년, 사용경력, 이용장소, 설치장소, 이용용이, 이용횟수, 이용시간, 평일기준, 주말기준, 하루 평균, 사용시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1) T-test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해 성별, 학교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부록 <표 1>은 성별 차이분석에 대한 t-test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인터넷 기대, 불안감, 스트레스, 친구지지가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에 대한 기술통계량이 남학생의 경우는 2.2442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2) t-test와 분산분석은 등간·비율척도로 측정된 종속변수와 명목·서열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독립변수의 명목·서열척도가 2개일 때는 t-test 또는 *Z*-test를 3개 이상일 때는 분산분석을 하게 된다. *Z*-test는 case가 30개 이상일 때 실시하지만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있어야 하는 한편 t-test는 표본의 크기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t-test로 대체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30개 이상이 되면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t-test와 *Z*-test의 분석결과는 동이하다(채서일, 1995: 438).

Collection @ chosun

1.9548이며, t 값이 3.98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0으로 p 값의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인터넷 기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감(.001), 스트레스(.049), 친구지지(.002) 변수도 유의확률 p 값이 0.05보다 적으므로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인터넷 기대의 성별에 따른 변수는 여학생에서보다 남학생이 산술평균값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감, 스트레스, 친구지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산술평균값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기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영향력이 높고, 불안감, 스트레스, 친구지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부록 <표 2>는 학교차이분석에 대한 t-test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인터넷 기대, 불안감, 친구지지가 학교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에 대한 기술통계량이 전문계의 경우는 2.2718이고, 인문계의 경우는 2.0391이며, t 값이 3.44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값이 .001로 p 값의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두 변수 간에 평균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학교에 따른 인터넷 기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안감(.010), 친구지지(.023) 변수도 유의확률 p 값이 0.05보다 적으므로 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의 학교에 따른 변수는 인문계에서보다 전문계가 산술평균값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감, 친구지지는 전문계보다 인문계에서 산술평균값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기대는 전문계가 인문계보다 영향력이 높고, 불안감, 친구지지는 전문계보다 인문계가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분산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년, 사용경력, 이용장소, 설치장소, 이용용이, 이용횟수, 이용시간, 평일기준, 주말기준, 하루 평균, 사용시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첫째, 연령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3>는 연령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자기효능감,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이다.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2.44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6으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연령에 따라서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고 인터넷 지각에 있어서 18세에서 가장 높고, 16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F 값이 3.12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15, 친구지지는 F 값이 4.74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학업성취감은 F 값이 3.15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14로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는 18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지지는 1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모두 16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4>는 학년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불안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이다. 학년에 의한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6.64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학년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학년에 따라서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고 2학년에서 가장 높고, 3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안감은 F 값이 3.62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13, 스트레스는 F 값이 3.11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26, 자기효능감은 F 값이 4.43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4,의사소통은 F 값이 2.72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4로 자기효능감, 친구지지는 F 값이 6.826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학업성취감은 F 값이 4.04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7로 불안감, 스트레스, 의사소통, 친구지지는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은 3

Collection @ chosun

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은 1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이용기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5>는 이용기간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이다.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3.35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사용경력으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용기간에 따라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1년 미만에서 가장 높고, 4년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이용 장소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6>은 이용 장소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이다.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5.45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1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이용 장소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용 장소에 따라서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친구 집에서 가장 높고, 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설치장소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7>은 설치장소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13가지 변수 모두 설치장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p 값 모두 p 값의 기준인 0.05보다 크므로 변수 간에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설치장소에 따른 변수들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은 대체적으로 형제, 자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여섯째, 이용 용이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8>은 이용 용이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강박증이다.

강박증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4.42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2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이용 용이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용 용이성에 따라서 강박증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조금 어렵다'에서 가장 높고, '매우 어렵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이용횟수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9>는 이용횟수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익명성, 인터넷 중독, 강박증이다. 익명성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2.57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이용회수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용횟수에 따라서 익명성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익명성의 지각에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서 가장 높고, 1주일에 1~2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F 값이 10.78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강박증은 F 값이 2.48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3으로 인터넷 중독은 거의 매일한다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강박증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주일에 1~2일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10>은 이용시간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양육태도이다.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3.51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8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Collection @ chosun

적으므로 이용시간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용시간에 따라서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F 값이 21.69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스트레스는 F 값이 2.43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6, 양육태도는 F 값이 4.236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2로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양육태도 모두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인터넷 중독은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양육태도와 스트레스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홉째, 평일기준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11>은 평일기준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이다. 평일기준에 의한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5.99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평일기준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용시간에 따라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F 값이 10.81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양육태도는 F 값이 2.86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인터넷 중독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태도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 모두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열번째, 주말기준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12>은 주말기준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양육태도이다.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9.67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p 값 기준인 0.05보

Collection @ chosun

다 적으므로 주말기준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주말기준에 따라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F 값이 18.692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스트레스는 F 값이 2.915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21, 양육태도는 F 값이 2.41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8로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는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 이상~1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열한째, 하루 평균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13>은 하루 평균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강박증, 양육태도이다.

하루 평균에 의한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7.09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으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하루 평균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하루 평균에 따라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F 값이 17.82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강박증은 F 값이 2.93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20, 양육태도는 F 값이 2.51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1로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는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강박증은 30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은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강박증과 양육태도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열두째, 사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의 변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Collection @ chosun

을 실시하였다. 부록 <표 14>는 사용시간별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변수들 중에서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는 변수는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스트레스, 양육태도이다. 사용시간에 의한 인터넷 기대의 기술통계를 구하여 지각차이를 검증한 결과 F 값이 3.79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5로 p 값 기준인 0.05보다 적으므로 이용시간별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사용시간에 따라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15시간 이상에서 가장 높고, 2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접근성 F 값이 2.427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47, 인터넷 중독은 F 값이 19.44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0, 불안감 F 값이 2.764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27, 스트레스는 F 값이 1.488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24, 양육태도는 F 값이 3.95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 p = .004로 접근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스트레스, 양육태도 모두 15시간 이상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 불안감, 스트레스, 양육태도는 2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 4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관계, 즉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중독,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따라서 이론구성과 연구 설계에 의하여 나타난 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제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고,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한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AMOS 6.0을 통해 검증하였다.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하나의 변수가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상관관계의 성격은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

Collection @ chosun

다. 상관관계 분석 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나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영향이 모두 포함되므로 두 변수 사이의 순수한 관계가 어떠한지는 단정할 수 없다(김태일,1997: 25). 즉 두 변수사이의 인과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허위변수나 실제의 관계보다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되는 혼란변수가 개입될 개연성이 있다(남궁근, 1998: 212). 따라서 회귀모형 분석과정에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목적이 변수간 관계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상관관계 분석결과의 해석시 두 변수 사이에 공동변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여야 한다(Hair, Jr et al., 1998: 603). 상관관계 계수는 두 변수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측정치가 아닌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의 비율이나 백분율과는 다르다. 변수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해 표시해 주는 지수가 상관계수이다(박희서 외, 2007: 171). 상관계수 r은 「$-1 \leq r \leq +1$」의 값을 갖고 측정된 데이터가 좌표 상에 정(+)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이 상관계수는 정(+)의 상관계수를, 그리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에 가까울 때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또한 선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강박증,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양육태도,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등 13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인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Person상관계수가 0.5이상인 것들로 불안감은 강박증(r=.555), 스트레스(r=.531)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양육태도(r=.427)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강박증은 스트레스(r=.394)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표 4-10> 변수 간 상관관계

구 분	인터넷 기 대	접근성	익명성	인터넷 중 독	불안감	강박증	스 트 레 스	자 기 효능감	의 사 소 통	양 육 태 도	교 사 지 지	친 구 지 지	학 업 성취감
평 균	2.1540	2.8163	2.1370	2.6289	2.6673	2.0551	2.9414	3.0835	3.0378	2.7384	2.9972	3.3829	3.1155
표 준 편 차	.7918	.9290	.8334	.8300	.9061	.7860	.7291	.6752	.8089	.8455	.6775	.6879	.7787
인터넷 기 대	1.00												
접근성	.141**	1.00											
익명성	.247**	.153**	1.00										
인터넷 중 독	.337**	.144**	.205**	1.00									
불안감	.218**	.081	.136**	.242**	1.00								
강박증	.316**	.125**	.285**	.283**	.555**	1.00							
스 트 레 스	.192**	.130**	.253**	.302**	.531**	.394**	1.00						
자 기 효능감	.003	.090*	.051	.052	.047	.153**	.029	1.00					
의 사 소 통	.068	.087*	.016	.066	.125**	.129**	.134**	.228**	1.00				
양 육 태 도	.239**	.160**	.182**	.184**	.295**	.216**	.427**	.039	.224**	1.00			
교 사 지 지	.072	.072	.054	.042	.046	.010	.001	.228**	.189**	.042	1.00		
친 구 지 지	.076	.018	.147**	.076	.032	.191**	.010	.424**	.312**	.005	.346**	1.00	
학 업 성취감	.123**	.094*	.072	.048	.098*	.086	.135**	.332**	.174**	.051	.335**	.358**	1.00

* : P < 0.05 ** : P <0.01

Collection @ chosun

2. 연구모형의 검증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기존의 자료 속에 존재하는 연구모형을 발견하는 탐색적 요인 방식이라기보다는 가설분석모형이 표본자료에 대응하여 얼마나 지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확인적 요인분석 방식을 의미한다(이순묵, 1990: 23~36).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성개념간의 인과관계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다음 그 효과를 기술하고 설명된 분산과 설명되지 않은 분산을 구분하여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공분산구조모델(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이라고 부른다.[3] 구조방정식모델은 일련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방향 혹은 양방향으로 동시에 보여주면서 검토 및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하나의 자료 분석 구조에 통합한 형태이다. 즉 하나의 원인변수는 또 다른 설명 변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원적인 개념모형이 동시에 이루어져 서로간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 모형의 발전과정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다(허준·최인규, 2000: 3~5).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값(χ^2)을 비롯하여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원소간평균차이(RMR) 등과 같은 절대부합지수와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의 증대부합지수, 그리고 간명기초부합지수로써 PGFI 등의 부합도 지수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부합성을 판단하고 고정지수를 가지고 가설의 부합성 여부를 검증한다.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

3) 공분산구조모형은 상관관계 자료를 가지고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분석으로써 일련의 관찰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보다 더 적은 수의 잠재적 변수들 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Long, 1983: 11).

Collection @ chosun

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해 보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전반적인 부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4-11>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값 1889.074, 자유도(df) 487, χ^2에 대한 p 값 0.000으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 그리고 p 값만으로 볼 때는 유의한 값이 되어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카이제곱값이 매우 크고 그 확률값(p = 0.000)이 0.05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합도가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Bentler & Bonett, 1980: 591). 따라서 다른 부합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4-11> 모형검증 결과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1889.074 (.000)	487	.906	.073	.048	.902	.907	.907	.903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3.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한 다음 여기서 얻은 표본의 특성치를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등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을 통해 얻은 표본의 특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Collection @ chosun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표 4-12>와 같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까지 검증한 결과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86, p 값은 .000), 접근성(경로계수 .106, p 값은 .040), 익명성(경로계수 .125, p 값은 .01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5>까지 검증한 결과 인터넷 중독은 불안감(경로계수 .297, p 값은 .000), 강박증(경로계수 .408, p 값은 .000)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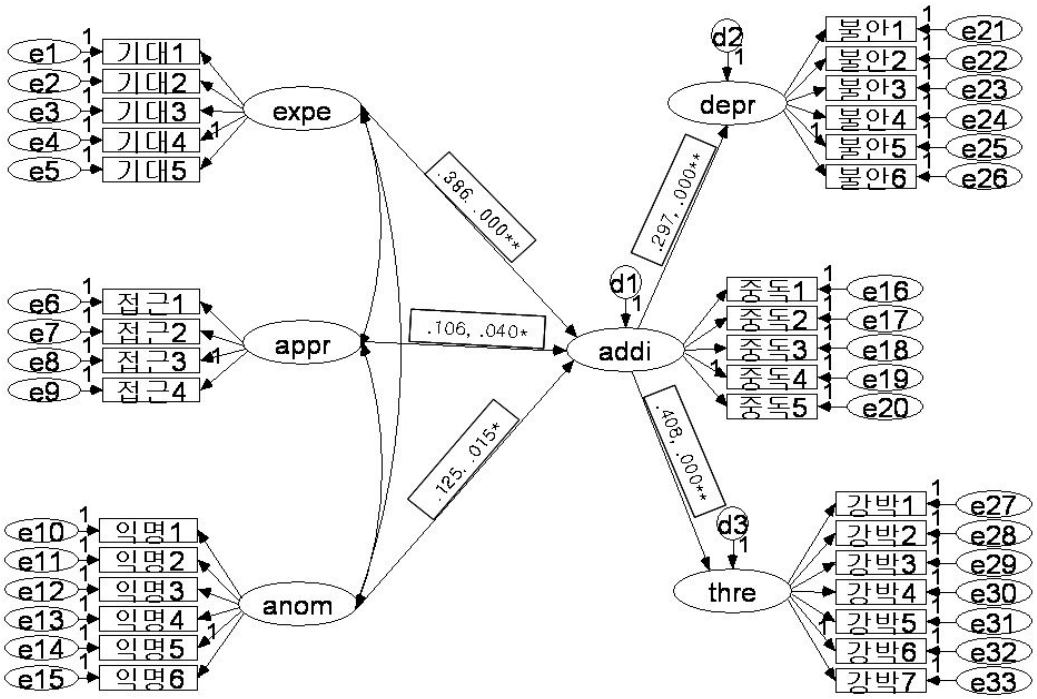
<표 4-12> 가설검증 결과

가 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t 값)	*p*	채택 여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 인터넷기대 → 인터넷중독	.391	.386	.060	6.533	.000	**채택**
2. 접근성 → 인터넷중독	.100	.106	.049	2.054	.040	**채택**
3. 익명성 → 인터넷중독	.114	.125	.047	2.431	.015	**채택**
4. 인터넷중독 → 불안감	.342	.297	.062	5.484	.000	**채택**
5. 인터넷중독 → 강박증	.491	.408	.069	7.135	.000	**채택**

<그림 4-1>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그림 4-1> 가설검증의 결과



1. 경로계수, t 값(p) (*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4. 조절효과분석

1) 분석방법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집단 간 비교방법을 활용하였다. 집단 간 비교의 경우에는 여러 집단 간 비교도 가능하지만, 두 집단 간 비교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조절변수들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각 조절변수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조절변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조절변수의 값

Collection @ chosun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번의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하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free model)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설정한 제약모형(equality constrained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셋째,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값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모형과 제약모형을 비교하여 자유모형의 경우 자유도 감소를 만회할 만큼 χ^2값이 충분히 감소하였다면, 경로계수가 조절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자유모형이 제약모형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각 집단의 경로계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13>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3>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536.143 (.000)	974	.901	.055	.061	.905	.907	.904	.902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표4-14>는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사이의

Collection @ chosun

인과관계를 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 ~3-1>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24, p 값은 .000), 접근성(경로계수 .138, p 값은 .070), 익명성(경로계수 .139, p 값은 .023)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접근성(경로계수 .070, p 값은 .402)과 익명성(경로계수 .093, p 값은 .318)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502, p 값은 .00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1~5-1>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354,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438,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도 불안감(경로계수 .213, p 값은 .027)과 강박증(경로계수 .337, p 값은 .001)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성별에 따른 가설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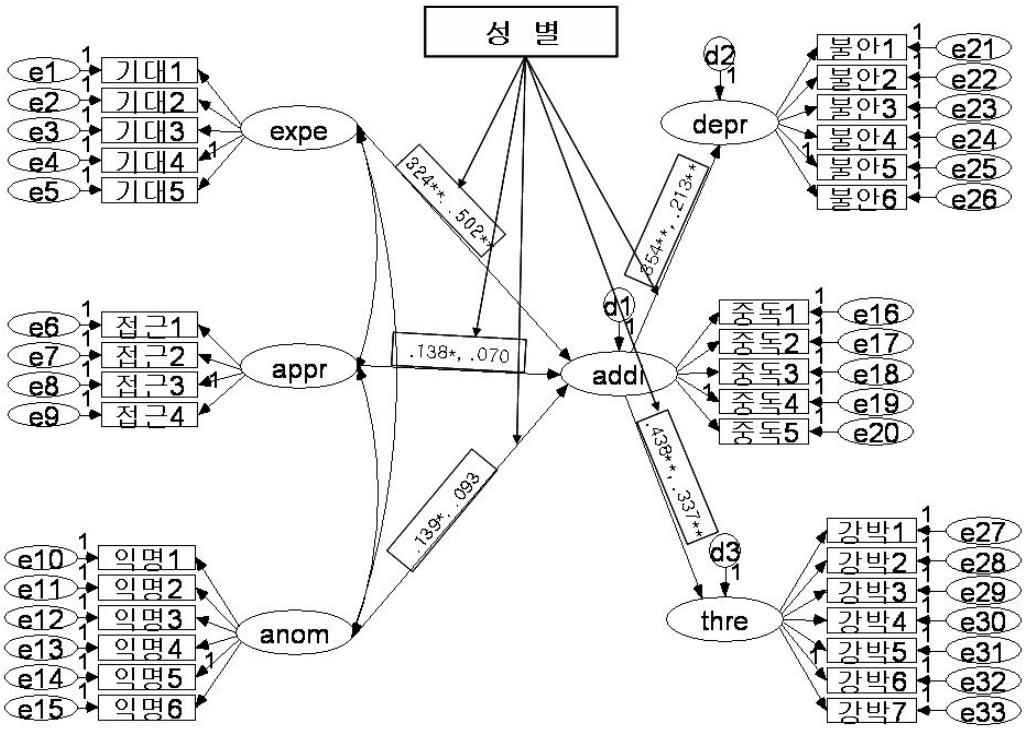
가 설	경로계수		C.R. (t 값)		*p*		채택여부		차이여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1.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324	.502	4.850	3.826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2-1. 접근성 → 인터넷 중독	.138	.070	2.162	.838	.031	.402	**채택**	기각	**있음**
3-1. 익명성 → 인터넷 중독	.139	.093	2.280	.998	.023	.318	**채택**	기각	**있음**
4-1. 인터넷 중독 → 불안감	.354	.213	5.429	2.215	.000	.027	**채택**	**채택**	**있음**
5-1. 인터넷 중독 → 강박증	.438	.337	6.512	3.198	.000	.001	**채택**	**채택**	**있음**

<그림 4-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Collection @ chosun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성별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남/여),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3) 스트레스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에 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스트레스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15>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표 4-15> 스트레스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477.130 (.000)	974	904	.053	.056	.903	.908	.907	.902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스트레스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2 ~3-2>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접근성(경로계수 .191, p 값은 .0.18)과 익명성(경로계수 .071, p 값은 .804)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80, p 값은 .00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64, p 값은 .000), 접근성(경로계수 .191, p 값은 .018), 익명성(경로계수 .217, p 값은 .006) 모두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스트레스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2~5-2>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 높은 경우 불안감(경로계수 .330, p 값은 .00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박증(경로계수 .439, p 값은 .00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낮은 경우 불안감(경로계수 .099, p 값은 .142)과 강박증(경로계수 .267,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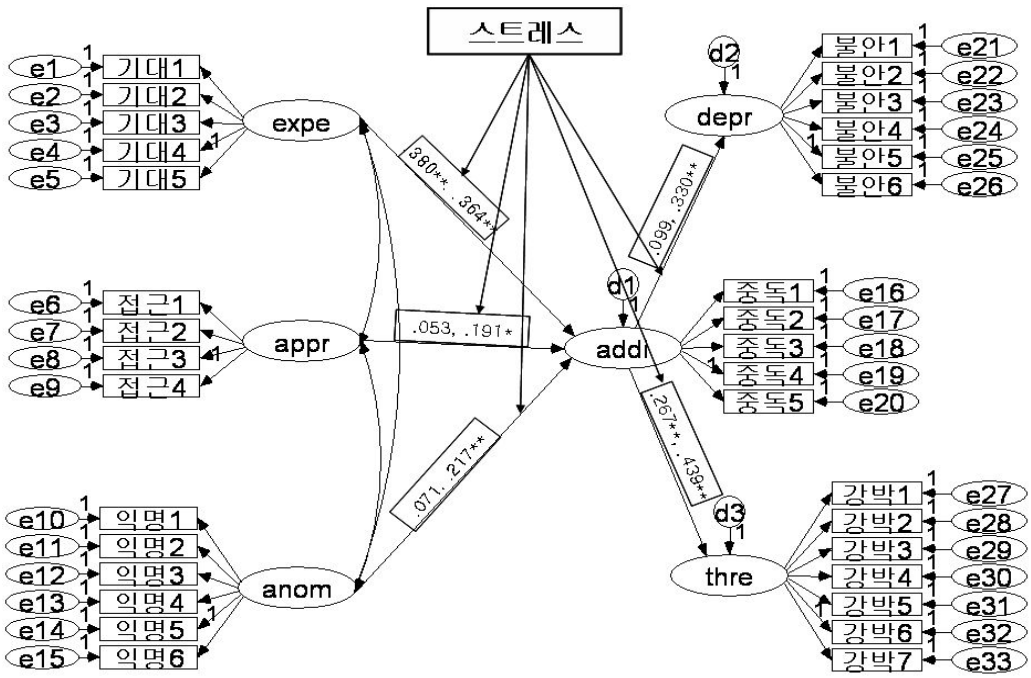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표 4-16> 스트레스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값)		p		채택여부		차이 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2.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380	.364	4.439	4.365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2-2. 접근성 → 인터넷 중독	.053	.191	.766	2.358	.444	.018	기각	**채택**	**있음**
3-2. 익명성 → 인터넷 중독	.071	.217	.248	2.772	.804	.006	기각	**채택**	**있음**
4-2. 인터넷 중독 → 불안감	.099	.330	1.467	3.944	.142	.000	기각	**채택**	**있음**
5-2. 인터넷 중독 → 강박증	.267	.439	3.509	5.311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그림 4-3>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3> 스트레스의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스트레스 고/스트레스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Collection @ chosun

4) 자기효능감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 강박증에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17>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7> 자기효능감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579.475 (.000)	974	.907	.055	.054	.901	.913	.911	.904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09이상			.09이상

<표4-18>는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기효능감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3~3-3>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112, p 값은 .154)과 익명성(경로계수 .043, p 값은 .586)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403, p 값은 .00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114, p 값은 .098)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85, p 값은 .000), 익명성(경로계수 .043, p 값은 .586)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자기효능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3~5-3>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 이

Collection @ chosun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불안감(경로계수 .310,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413,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282,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405,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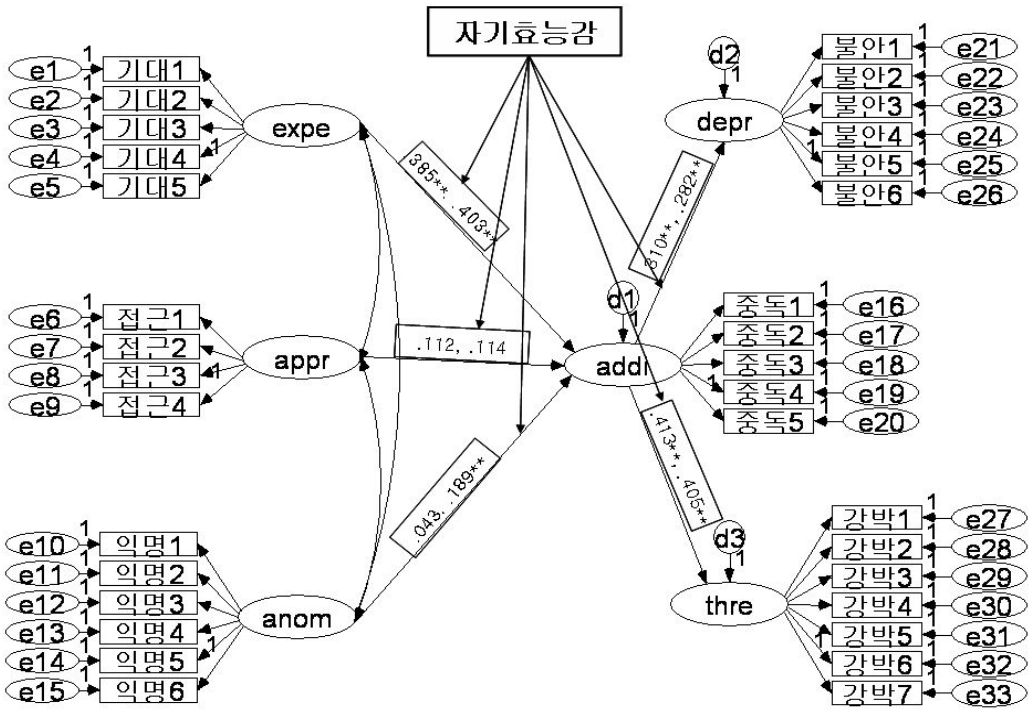
<표4-18> 자기효능감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값)		*p*		채택여부		차이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3.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385	.403	4.255	5.093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2-3. 접근성 → 인터넷 중독	.112	.114	1.425	1.654	.154	.098	기각	기각	없음
3-3. 익명성 → 인터넷 중독	.043	.189	.545	2.759	.006	.586	기각	**채택**	**있음**
4-3. 인터넷 중독 → 불안감	.310	.280	3.906	3.841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5-3. 인터넷 중독 → 강박증	.413	.405	4.939	5.181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그림 4-4>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요인 가운데서는 익명성만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그림 4-4> 자기효능감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자기효능감 고/자기효능감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5) 의사소통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였다. 의사소통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19>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표 4-19> 의사소통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619.995 (.000)	974	.904	.056	.053	.902	.909	.907	.900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09이상			.09이상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의사소통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4~3-4>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에서는 익명성(경로계수 .132, p 값은 .089)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406, p 값은 .000)와 접근성(경로계수 .239, p 값은 .004)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003, p 값은 .971)과 익명성(경로계수 .081, p 값은 .240)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73, p 값은 .000)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의사소통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4~5-4>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 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313,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377,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에서도 불안감(경로계수 .284,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377,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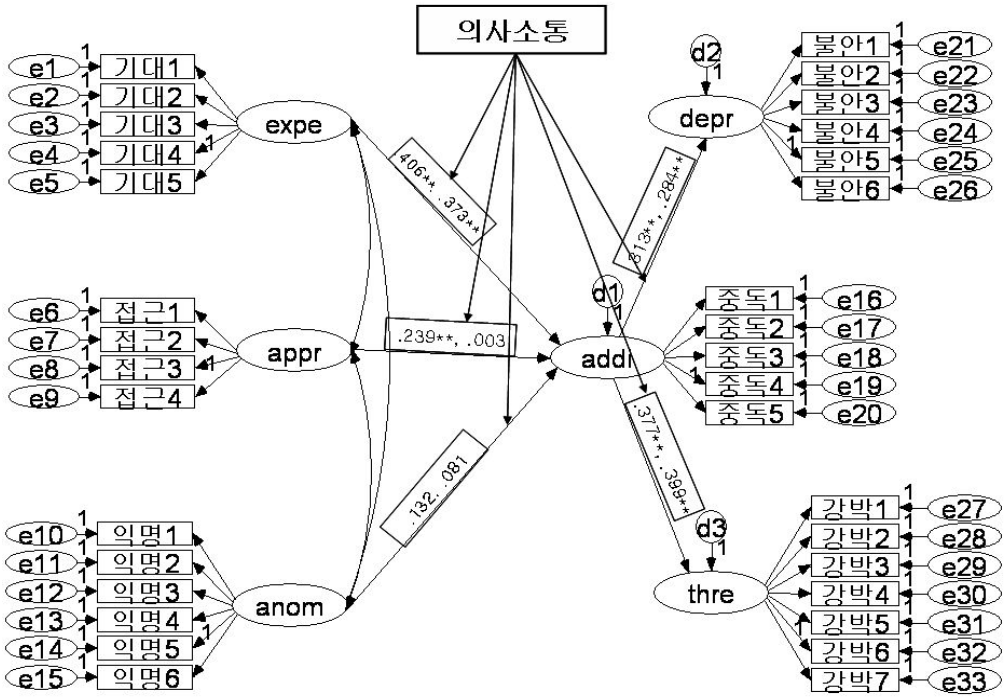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표 4-20> 의사소통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값)		p		채택여부		차이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4.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406	.373	4.638	4.557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2-4. 접근성 → 인터넷 중독	.293	.003	2.862	.037	.004	.971	**채택**	기각	**있음**
3-4. 익명성 → 인터넷 중독	.132	.081	1.699	1.175	.089	.240	기각	기각	없음
4-4. 인터넷 중독 → 불안감	.313	.284	3.846	3.951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5-4. 인터넷 중독 → 강박증	.377	.399	4.465	5.281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그림 4-5>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와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5> 의사소통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의사소통 고/의사소통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dCollection @ chosun

6) 양육태도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양육태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21>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1> 양육태도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569.131 (.000)	974	.907	.055	.059	.902	.909	.908	.903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09이상			.09이상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5~3-5>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154, p 값은 .025과 익명성(경로계수 .135, p 값은 .044)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77, p 값은 .00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에서는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77, p 값은 .000),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성(경로계수 014, p 값은 .852), 익명성(경로계수 .134, p 값은 .044) 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태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5~5-5>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301,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398, p 값은

dCollection @ chosun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249,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357,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도 양육태도의 정도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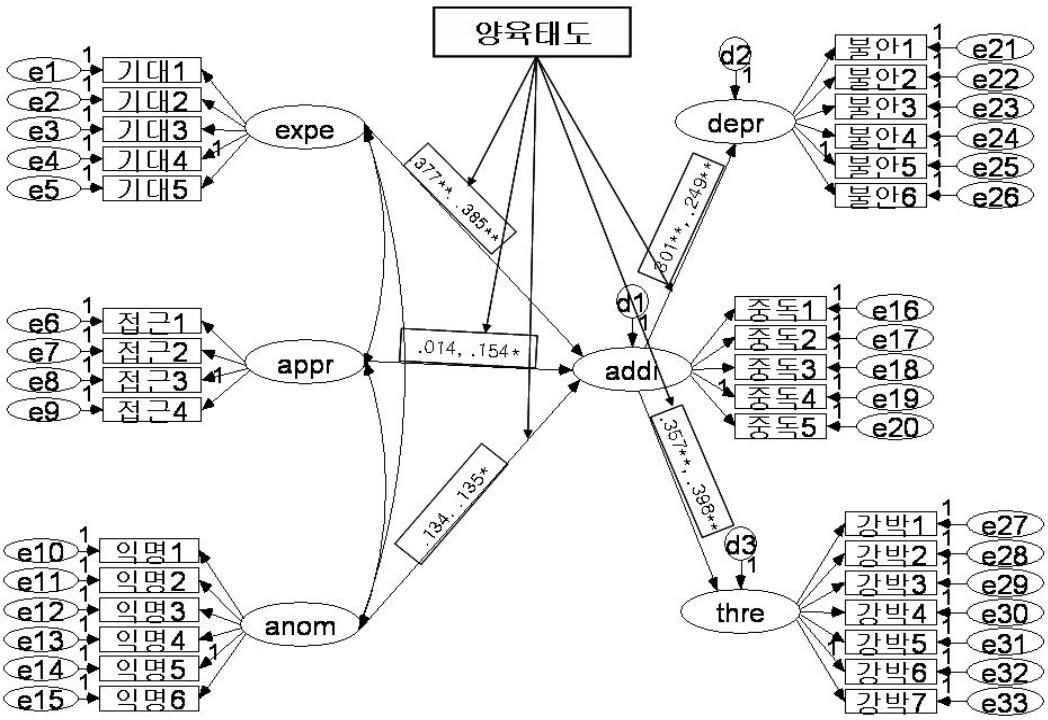
<표 4-22> 양육태도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값)		*p*		채택여부		차이 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5.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377	.385	4.215	4.898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2-5. 접근성 → 인터넷 중독	.014	.154	.186	2.235	.852	.025	기각	**채택**	**있음**
3-5. 익명성 → 인터넷 중독	.134	.135	1.691	2.013	.091	.044	기각	**채택**	**없음**
4-5. 인터넷 중독 → 불안감	.301	.249	3.557	3.555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5-5. 인터넷 중독 → 강박증	.357	.398	4.089	5.349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그림 4-6>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그림 4-6> 양육태도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양육태도 고/양육태도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7) 교사지지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교사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23>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표 4-23> 교사지지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574.444 (.000)	974	.904	.055	.047	.901	.908	.906	.902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09이상			.09이상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교사지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6~3-6>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교사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교사지지가 높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149, p 값은 .099)과 익명성(경로계수 .158, p 값은 .09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424, p 값은 .00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가 낮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099, p 값은 .099)과 익명성(경로계수 .116, p 값은 .091)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91, p 값은 .002)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교사지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6~5-6>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교사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교사지지가 높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330,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365,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가 낮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149, p 값은 .101)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박증(경로계수 .365, p 값은 .00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도 교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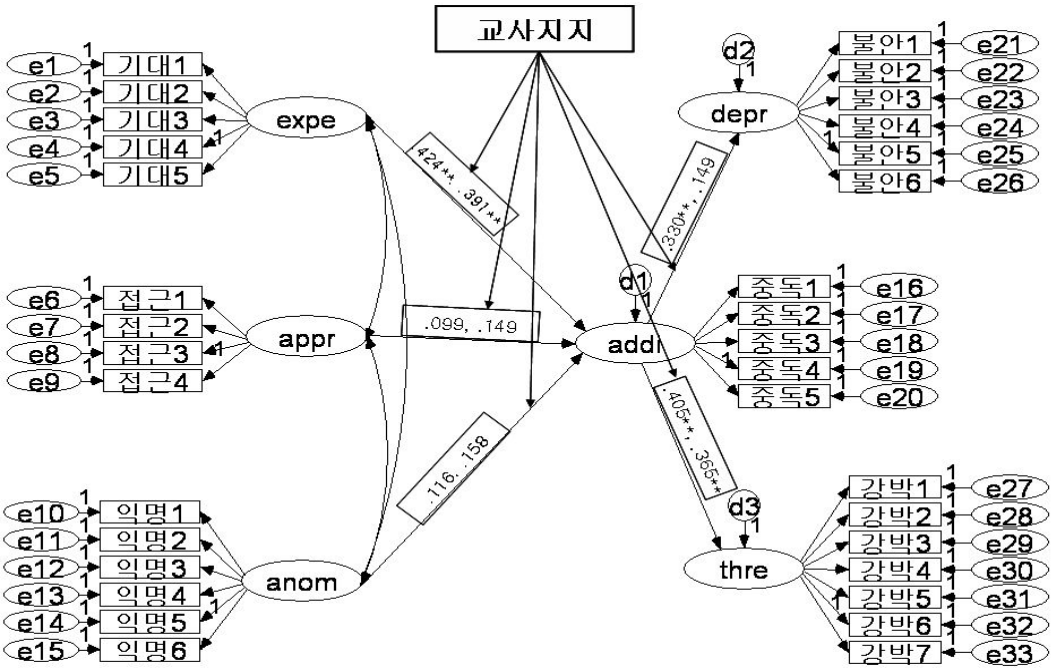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표 4-24> 교사지지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값)		p		채택여부		차이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6.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424	.391	5.894	3.103	.000	.002	**채택**	**채택**	**있음**
2-6. 접근성 → 인터넷 중독	.099	.149	1.565	1.651	.118	.099	기각	기각	없음
3-6. 익명성 → 인터넷 중독	.116	.158	1.908	1.690	.056	.091	기각	기각	없음
4-6. 인터넷 중독 → 불안감	.330	.149	5.069	1.638	.000	.101	**채택**	기각	**있음**
5-6. 인터넷 중독 → 강박증	.405	.365	5.975	3.551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그림 4-7>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교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교사지지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교사지지 고/교사지지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Collection @ chosun

8) 친구지지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친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친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였다.

친구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25>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5> 친구지지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564.325 (.000)	974	.907	.055	.047	.901	.909	.908	.903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친구지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7~3-7>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친구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친구지지가 높은 경우에서는 익명성(경로계수 .128, p 값은 .07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89, p 값은 .000)와 접근성(경로계수 .389, p 값은 .00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가 낮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022, p 값은 .763)과 익명성(경로계수 .128, p 값은 .07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89, p 값은 .000)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와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친구지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7~5-7>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친구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친구지지가 높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328,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424, p 값은

dCollection @ chosun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가 낮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300,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374, p 값은 .00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도 친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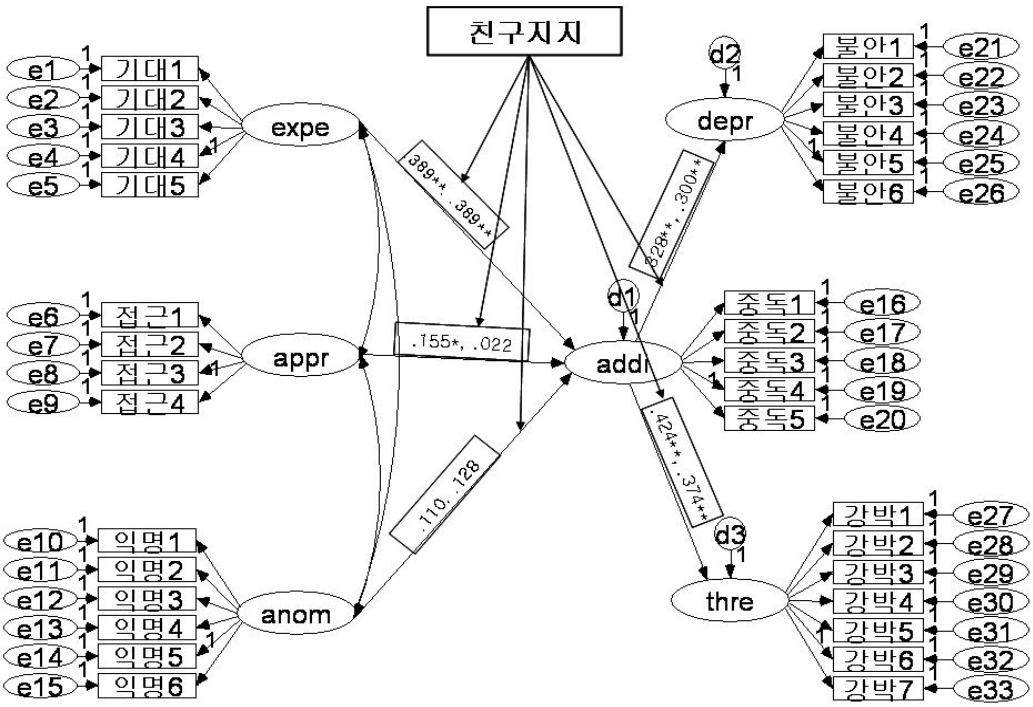
<표 4-26> 친구지지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 값)		*p*		채택여부		차이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7.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389	.389	4.692	4.527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2-7. 접근성 → 인터넷 중독	.155	.022	2.123	.301	.034	.763	**채택**	기각	**있음**
3-7. 익명성 → 인터넷 중독	.110	.128	1.486	1.782	.137	.075	기각	기각	없음
4-7. 인터넷 중독 → 불안감	.328	.300	4.353	3.813	.000	.000	**채택**	**채택**	**없음**
5-7. 인터넷 중독 → 강박증	.424	.374	5.426	4.479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그림 4-8>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도 친구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그림 4-8> 친구지지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친구지지 고/친구지지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9) 학업성취감에 따른 조절효과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학업성취감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4-27>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 4-27> 학업성취감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지수	2585.239 (.000)	974	.905	.055	.043	.900	.908	.907	.901
적합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학업성취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8~3-8>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학업성취감을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학업성취감이 높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123, p 값은 .15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408, p 값은 .000)와 익명성(경로계수 .265, p 값은 .000)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감이 낮은 경우에서는 접근성(경로계수 .100, p 값은 .150)과 익명성(경로계수 .014, p 값은 .845)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경로계수 320, p 값은 .000)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의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학업성취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4-8~5-8>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학업성취감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로계수를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학업성취감이 높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438, p 값은 .000)과 강박증(경로계수 .581, p 값은 .000)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감이 낮은 경우에서는 불안감(경로계수 .191, p 값은 .006)과 강박증(경로계수 .270, p 값은 .000)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강박증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성취감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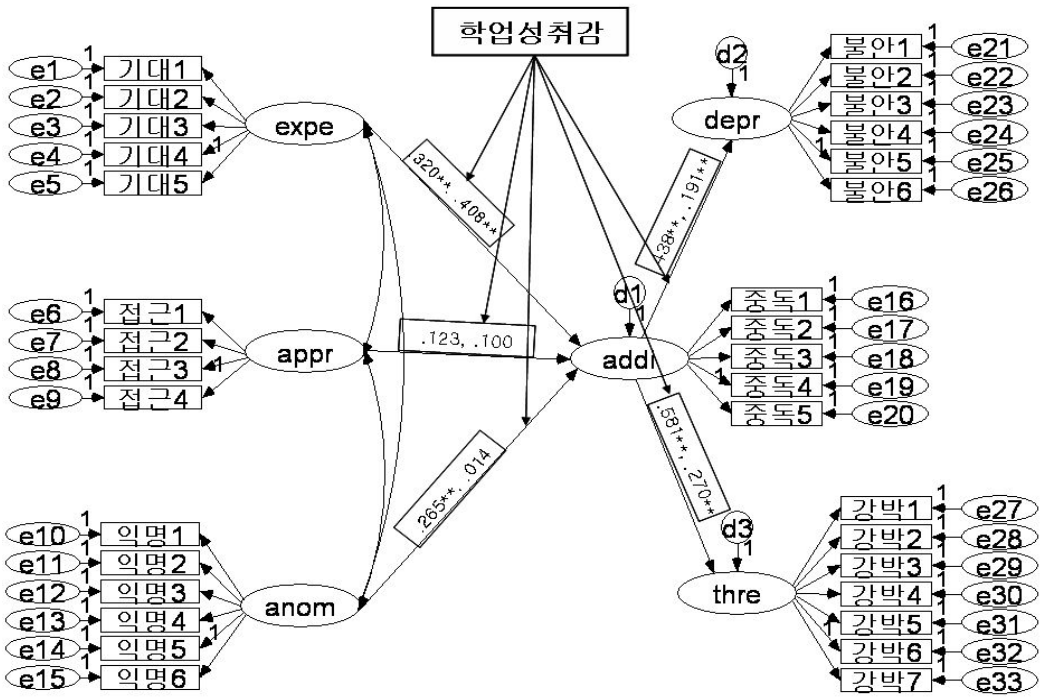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표 4-28> 학업성취감에 따른 가설검증

가 설	경로계수		C.R. (t값)		p		채택여부		차이여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1-8. 인터넷 기대 → 인터넷 중독	.320	.408	3.877	5.582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2-8. 접근성 → 인터넷 중독	.123	.100	1.672	1.438	.104	.150	기각	기각	없음
3-8. 익명성 → 인터넷 중독	.265	.014	3.359	.196	.000	.845	**채택**	기각	**있음**
4-8. 인터넷 중독 → 불안감	.438	.191	4.996	2.761	.000	.006	**채택**	**채택**	**있음**
5-8. 인터넷 중독 → 강박증	.581	.270	5.997	3.786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그림 4-9>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체적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이 학업성취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학업성취감에 따른 가설 검증결과



1. 경로계수(학업성취감 고/학업성취감 저), p 값(* : P < 0.05 ** : P < 0.01))
2. expe: 인터넷 기대, appr: 접근성, anom: 익명성, addi: 인터넷 중독, depr: 불안감, thre: 강박증

Collection @ chosun

제 5 절 분석결과 종합적 논의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첫째, 성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불안감, 스트레스, 친구지지가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감, 스트레스, 친구지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고,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지는 인터넷 기대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불안감, 친구지지가 학교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는 전문계가 인문계보다 더 높고, 불안감, 친구지지는 전문계보다 인문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령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자기효능감,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18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는 18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1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대, 자기효능감,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모두 16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학년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불안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2학년에서 가장 높고, 3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불안감, 스트레스, 의사소통, 친구지지는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은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은 1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고,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며,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지지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무척 중요하며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여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학업성취감은 학년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용경력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가 사용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

dCollection @ chosun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1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이유로는 인터넷 사용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주는 욕구충족이나 자신을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는 기대감과 4년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을 정보획득이나 인간관계 증진 활용하려는 인터넷 기대는 사용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용 장소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가 이용 장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의 지각에 있어서 친구 집에서 가장 높고, 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인터넷 기대는 이용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설치장소별 비교분석 결과 13가지 변수 모두 설치장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균값은 대체적으로 형제, 자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이용 용이성별 비교분석 결과 강박증이 이용 용이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박증의 지각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에서 가장 높고, 매우 어렵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고, 자책을 잘하며,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증은 이용 용이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홉 번째, 이용횟수별 비교분석 결과 익명성, 인터넷 중독, 강박증이 이용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익명성과 강박증의 지각에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서 가장 높고, 1주일에 1~2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은 거의 매일한다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할 때 나이와 성별을 밝히지 않으며, 나이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익명성과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는 인터넷 중독과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려우며 자책을 잘하고 만지며 셈하고 씻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증은 이용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번째, 이용시간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이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양육태도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일에 지장을 받는다는 인터넷 중독과, 자주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한 적이 있고,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 스트레스와 부모

Collection @ chosun

님께서 화가 나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심하게 벌을 주고, 나를 너무 어린애로 다루며,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은 양육태도는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한째, 평일기준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가 평일기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양육태도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 모두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께서 화가 나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심하게 벌을 주는 양육태도는 평일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두째, 주말기준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주말기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양육태도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분 이상~1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인터넷 기대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인터넷 중독과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는 양육태도는 주말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셋째, 하루 평균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강박증, 양육태도가 하류평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의 지각에 있어서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에서 가장 높고, 30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강박증과 양육태도는 30분 이상~1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지는 인터넷 기대와 다른 사람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숨긴다는 인터넷 중독과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자 있을 수가 없다는 강박증과 나를 너무 어린애로 다루며,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은 양육태도는 하루 평균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넷째, 사용시간별 비교분석 결과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스트레스, 양육태도이다.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인터넷 중독, 불안감, 스트레스, 양육태도 모두 15시간 이상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 불안감, 스트레스, 양육태도는 2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7시간 이상~10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람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인터

Collection @ chosun

넷 기대와 집(학교) 근처에는 전자오락실이나 PC방이 많이 있는 접근성과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울하고 울적해 하거나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는 인터넷 중독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는 불안감과 나는 조절 능력 밖의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는 스트레스와 부모님은 나를 너무 어린애로 다루는 것 같다는 양육태도는 사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설검증 결과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중독과 그 결과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과모형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고,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인터넷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집(학교) 근처에 전자오락실, PC방이 많으며 오락기가 있는 문구점이 많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비용이 싸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어느 때든 찾아갈 수 있고 주변 환경이 유해할수록 인터넷에 많이 노출 되어 인터넷 접근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본능을 발산 할 수 있다. 또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은 정신건강인 불안감과 강박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되며,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마음의 안정이 안 되어,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불안감에 빠지게 되며, 자책을 잘하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는 것이 거북하여 강박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게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필요함

Collection @ chosun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임을 보고한 연구(김웅장, 2003 ;김혜정, 2002 ; 김옥순, 1998 ; 김윤희, 2002 ; 김윤희, 2003, ;김윤희, 2004 ; 권구영, 이혜자, 2003 ; 이경님, 하연미, 2004 ; 이상준, 2003)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강박증,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게임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병리적 수준의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이상준, 2003)와 일치되는 결과로 인터넷 중독의 결과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중독의 결과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터넷 환경(인터넷 기대, 접근성, 익명성)이며 개인적요인(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가정적요인(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은 조절변수로 인터넷 중독을 완화시키고 조절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조절효과 검증 결과

1)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기대와 인터넷 중독

첫째,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나 욕구해소 방안의 모색에 관련하여 남학생들에 비해 더 소극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자녀 간

Collection @ chosun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간 원활한의사소통은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던 부모의 양육태도는 인터넷 기대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이고 비성취적이며 거부-통제적 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하며,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 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았다. 가정요인 가운데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교사지지와 학업성취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대로 인한 인터넷 중독성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업성취감의 경우에는 학업성취감이 높은 경우에 인터넷 기대로 인한 인터넷 중독성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접근성과 인터넷 중독

첫째,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과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학생들의 경우 학업과 친구관계 또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접근성이 좋을 경우 더 쉽게 인터넷 중독 성향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라 하였고 특히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며 애정적이고 민주적일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셋째,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더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비슷한 가치관, 배경, 관심, 생각을 공유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에게 친구가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사이의 우정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이해가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친구지지가 인터넷 중독성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사지지나 학성성취감은 조절변수로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래 친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익명성과 인터넷 중독

첫째,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은 익명성이 높을 경우 더 인터넷 중독 성향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관리는 인터넷 중독 성향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 모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가정적 요인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학업성취감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감이 높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감은 인터넷 중독 성향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2)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1) 인터넷 중독과 불안감

첫째, 인터넷 중독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과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에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불안감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관리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과 불안감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불안감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이해도가 높고 자녀와 대화시간이 많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하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불안감 완화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중독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지지와 학업성취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성향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지지가 중요하며 학업성취감 역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터넷 중독과 강박증

첫째,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과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경우에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강박증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박증의 완화와 관련하여 남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 모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따른 강박증의 완화와 관련하여 가정요인

Collection @ chosun

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중독이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성취감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나 친구지지 또는 학업성취감이 높을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에 따른 강박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터넷 중독에 다른 강박증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요인이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조절변수들에 대한 논의

(1) 개인적 요인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도한데 비해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 할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조절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독이라는 맥락에서 인터넷 사용도 약물중독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사료되지만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을 관련시킨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시형 등의 연구(2000)에서 인터넷 사용집단을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 위험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독 위험군이 비 위험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신과 주위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기대가 높아도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아지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기대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청소년들에게는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옥영, 2000 ; 박현선. 1998 ; 유성경, 2000 ; Greenfield, 2000 ; Taylor, 2000)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현실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을 통제할

Collection @ chosun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현실에서 경험한 좌절에 대한 허위적인 보상을 제공한다(Suler, 1996)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 기대가 높더라도 인터넷의 중독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조혜연, 2001)고 보고 된 바도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학습이나 정보 등 보다 더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2) 가정적 요인

가정요인으로 의사소통은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강압적, 또는 지배적인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행하는 부모 등은 자녀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장휘숙, 2003). 부모자녀갈등과 인터넷 중독과의 선행연구에 있어서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윤영민, 2000), 부모의 감독이 일방적인 지시적 행동이 높을 때(윤영민, 2000), 부모가 청소년자녀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간관리를 하는 부모일수록(김혜원, 2001 ;박정은, 2001)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높아져 청소년들의 인터넷 가용에 중독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헌, 2001; 김진희・김경신, 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기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아지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기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아졌음이 밝혀졌다. 이는 부모의 수용과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기대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 되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잘 유지 된다면, 이는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히 조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llection @ chosun

(3)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남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 친구 지지, 학업성취감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요인인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아지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졌음이 밝혀졌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선생님과 매우 가깝고 관심이 많으며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사랑, 칭찬이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들 에게 있어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은 학교에서의 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과 학교관련 활동에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터넷 중독이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교사의 지지가 낮은 학생들은 교사와 학교생활에 원활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이미라, 2000)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절요인으로서의 교사와의 관계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친구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에 공통적으로 중재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변인은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인터넷 중독현상이 부적절한 인간관계와 관련된다(King, 1996 ; Walther, 1994)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구들이 좋아해주며, 말을 잘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긍정적인 지지는 인터넷 중독 성향을 조절함으로써 학교생활이나 현실 세계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기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학업성취감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아질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덕, 2002 ; 윤영민, 2000 ; 홍경희, 2002, 이해경, 2002)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습하면서 끊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채팅을 하거니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한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게 되며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Collection @ chosun

열심히 하게 되므로 학업성취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2-3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게 되면서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많으므로 학습활동 이외에 게임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여 인터넷 중독과 같은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Collection @ chosun

제 5 장 결론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과 그 결과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도출하여 인과모형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 14.0버전과 AMOS 6.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성별 차이분석결과

첫째, 인터넷 중독 성향군에 포함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이용시간대별로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환경 변인 중 인터넷 기대는 성별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고, 학교별로는 전문계 고교가 인문계 고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세, 학년별로는 2학년, 사용경력별로는 1년 미만, 이용 장소별로는 친구의 집, 이용시간별로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접근성의 경우에는 사용시간별로 15시간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연령별로는 18세, 학년별로는 3학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학년별로는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이용시간별로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고, 친구지지는 학교간, 연령별, 학년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넷째, 불안감은 학교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의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용시간별로는 15시간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박증의 경우에는 이용 용이성이 매우 어렵고 이용 횟수가 1주일에 1~2일, 이용시간은 간 하루 평균 30분 이상~1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가설 검증의 결과

첫째, 인터넷 기대감 즉 인터넷을 이용한 후 경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익명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은 높은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을 분출하고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발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익명성을 통해 자신을 다른 형태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경험을 얻는 가운데 통제감과 우월감을 얻게 되어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C방 등 이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환경과 학교 환경이 유해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3. 조절효과 분석결과

첫째, 인터넷 기대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와 학업성취감 등이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함이 규명되었다.

둘째, 인터넷 접근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육태도, 친구의 지지 등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익명성과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성취감 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dCollection @ chosun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 중독과 불안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별,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업성취감 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과 강박증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별,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성취감 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중요한 시사점은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몇 요인간의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환경요인을 접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요인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이 점차로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이 청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과는 달리 변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책점, 전문적 접근방법은 매우 유연해야하며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성향을 단순히 몇몇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로서 파악하고자 했던 종래의 연구들과는 달리, 인터넷 중독 성향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결과인 정신건강 까지 복잡한 과정을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동일한 상황 조건 하에서 누구는 인터넷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누구는 그렇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성향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을 조절요인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개입에 있어서도 이용자체의 무조건적인 차단은 어려운 상황이며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병리적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개입함에 있어서 위험요인과 문제사이의 관계를

Collection @ chosun

완화시킴으로써 청소년에게 위험에 대해 저항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조절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보다 현실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여겨진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인터넷 환경인 인터넷 기대와 익명성과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기대감이 인터넷 중독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자신의 욕구충족이나 갈등해소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학업, 부모 또는 친구와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며 가상세계를 통해 만회하고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고 인터넷을 하는 동안 기대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대욕구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선행 연구인 이시형(2000)과 오현화(200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접근성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간 및 PC방 이용시간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를 (류진아, 2003; 권윤희, 2005) 지지하고 있다. 지역사회환경인 집이나 학교근처에 전자오락실이나 PC방이 많으며 또한 전자오락기기 많은 문구점이 있어 인터넷에 주변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여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해야 할일을 소홀히 하여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되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및 학교환경의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 시청, 등을 단속하여 인터넷 중독은 물론 각종 청소년 비행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나 학교근처 주변의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익명성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이용한 비방이나 욕설 또는 댓글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과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나이와 성별을 밝히지 않으며 나이를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익명성을 통해 자신을 다른 형태의 이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Collection @ chosun

경험을 얻는 가운데 인터넷 중독이 높아지게 된다는 선행연구(김옥순 외, 1998, Suler, 1998 ; Young, 1997)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개인적 요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가정적요인(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과 학교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인터넷 게임, 채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3시간이상 4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22.4%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일지나 시간 사용 평가표를 비치하여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일들을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처럼 감정표현이나 대처방법이 미숙한 연령에게서는 더욱더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공부도 싫고 학교도 짜증나고 생활이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게임은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때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게임은 삶의 안식처이자 유일한 출구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가시간에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있어서 가정적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보편적이고 폭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유능한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먼저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야 하며 부모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및 활동교육과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사용 외에 다른 활동 즉 등산, 축구, 농구 등의 신체적 운동이나 적당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재미와 활력을 얻게 하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일상에서 느끼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정보화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에서 지켜야할 예의와 규범에 대한 네티켓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시작 할 때이다.

dCollection @ chosun

여섯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접근으로 학교체계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시간 중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학교이므로 청소년들은 교사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교사들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비 상담 전문가를 위한 청소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 가족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간의사소통과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로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청소년의 환경요인인 학교, 교사, 친구간의 관계가 잘 유지 된다면,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결과인 정신건강까지 보호하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 3 절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인문계와 전문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 역시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중 가급적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조절요인을 더 다양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이 맞물려 정신건강 요인도 다양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사용시간에서 TV시청이나 EBS 교육방송 시청은 제하고 인터넷이나 게임만 사용한 시간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1. 단행본

김성이. (2002). 「약물중독총론」, 양서원.
김영종. (1998).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김혜련 외. (2006). 「정신건강론」, 학지사.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남궁근. (1998).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박희서 · 김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비엠앤북스.
윤종희. (1991). 「가족생태학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교문사.
이봉건. (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독, 사이버 공간의 심리」, 박영사.
이순묵.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성원사.
이인정 · 최해경. (199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이인혜. (1999). 「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이학식 · 임지훈. (2007). 「SPSS 12.0 매뉴얼」, 법문사.
이형초 · 심경섭. (2006) 「인터넷 중독 완전정복」, 시그마프레스.
장연집 외. (2006).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정창덕. (2007) 「유비쿼터스 컴퓨터 인터넷 윤리」, MJ미디어.
조선일보. (2006.2.14). 우리아이 망치는 '게임중독' / (上) 가정이 무너진다.
채서일. (1995),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허준. (2005) 「게임중독 이제는 해방이다」, 카푸치노 문고.
허준 · 최인규. (2000).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 고려정보사업.
황상민 · 김명주. (2005). 「너 지금 컴퓨터로 뭐하니」, 이한출판사.
한상철 편저. (2004). 「청소년학 - 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dCollection @ chosun

2. 논문

강만철・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Ⅱ),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16(4) : 247-274

강병규. (2003).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43(2) : 1-17

권윤희.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측모형 구축.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정혜.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267-279

권재환. (2005). 심리적・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중독간 관계: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신・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16(1) : 15-25

김동욱. (2001).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란. (2006).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현. (2005).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이 청소년정신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태. (2001), 고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존중감, 우울, 감각추구성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 자기통제력, 자기조절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윤. (2004). 자아, 스트레스 및 인터넷 사용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김양현. (1987). 자기통제법과 외적통제법이 학업성적의 향상과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옥순・홍혜영. (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1 : 통신중독증. 서울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김윤희. (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실태와 인터넷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계. 군산간호대학 간호과학논문집, 5(1), 55-72.

김윤희. (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실태와 인터넷중독,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군산간호대학 간호과학논문집, 6(1), 43-62.

김윤희. (2005). 인터넷 정신건강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정・이세용・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22(1) : 125-139.

김인자 역. (2003). 긍정적 중독. William Glasser. 1976. Positive Addiction. 한국심리상담연구소.

김재휘, 박유진. (2004). 인터넷상에서의 자아인식과 집단인식.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종범. (2000).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김경신.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모형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13(1) : 235-268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한국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김현수. (2002). 사이버 중독의 원인과 대책. 사목, 276, 55-79

김형모. (2004). 사회복지실천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논총」 제 9호 :1-18.

김형준・이상준・우정익・조항석・권혁중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중독관련 요인분석. 가정의학회지, 23(3), 334-343.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 변인 분석.「청소년학 연구」18(2) :91-117.

남영옥・이상준. (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

Collection @ chosun

과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9(3) : 185-212.

남윤주.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현주. (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의사소통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 사이버관련비행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진아.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수경. (2004).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민정. (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기. (2003).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운동중독에 관한 질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시현. (2002).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정민. (2007).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몰입 및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문영. (2005).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창. (2006).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윤숙. (2002). 게임방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과정과 사회복지적 함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정영. (1998). 아내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진희・손은령. (2007). 가정환경, 컴퓨터 과다사용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

Collection @ chosun

계.「한국청소년연구」18(1) : 135-158.

송영숙. (2005).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체력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옥녀. (2008).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균. (2004).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들의 정신병리 및 대처방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화.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유형,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인터넷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어기준. (2002). 청소년 음란물 중독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실태와 대책. 21세기 청소년포럼연제집, 한국청소년학회, 33-48.

오원옥. (2004).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 대한아동간호학회「아동간호학회지」10(1) : 48-58.

오현화.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 분석모형의 개발.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와 사회」2권 : 133-153.

윤영민. (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청소년의 문제와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윤재희. (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하연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5(42), 127-143.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종. (2005) 「구조방정식모형: 인과성, 통계분석 및 추론」. 국민대학교출판부.

이동수, 김효순, 김은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이

Collection @ chosun

중독에 미친 실증적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14권 제3호, PP.250-257.

이상의・최진호.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아 정체성 확립의 관계. 교육논집 제5호.

이선애. (2001).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1) : 57-83

이세용. (2000).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건강연구소.

이숙진.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순묵. (2005). 평가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논리. 박기찬(편집).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130-160. 서울: 박영사.

이시형.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영식. (2006). 인터넷 중독의 생물학적 원인 및 약물치료. 대한의사협회지 49(3) : 209-213.

이정연・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 335-346.

이지영. (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다행동 관련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항. (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칭찬・허남순. (2002). 한국 학교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이해경. (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중독을 예측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14(4) : 55-79.

이현주. (2006). 초등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하루 인터넷 게임시간 및 인터넷 게임중독.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18(2) : 119-137.

이형초. (2001).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진숙.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특성 분석에 기반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모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장재홍・유정이・권해수・김형수・최한나. (2002).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장호선. (2000).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청소년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란.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 우울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진.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32 : 5-34.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57(3) : 107-119.

정인선. (2005). 인터넷 중독 수준이 청소년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태.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남근・양돈규.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14(1) : 91-111.

조아미. (2000). '청소년 PC중독의 이해와 청소년PC중독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조영란.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유영. (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민. (2005).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춘범. (2007).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희창.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예방에 관한 연구: 자존감, 미래직업준비인식, 동아리활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덕환. (2009). 환경특성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규만, 박중규, 고유진, 송은희. (2001). 인터넷 중독상담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천정웅. (2000). N세대의 컴퓨터 몰입과 사이버 일탈.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 세미나 발표논집, “인터넷 문화: 청소년참여와 사이버일탈,” 76-98.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팽현기. (2003). 인터넷중독청소년의 우울감, 충동성, 사회회피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3)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2006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a) 2007 한국 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b) “2007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2006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200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한기홍. (2008).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복희. (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 정도와 중독성향에 대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9(2) : 19-39.

한인자. (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선·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교육정보미디어연구」12(2) : 161-188.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홍설화. (2005).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상민. (2001). 신세대(Ntpeo)의 자기표현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화지」13(3):9-19.

《 국외문헌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competence. in K.Connolly & J.Bruner(Eds), *The Growth of competence*, 97-118. London; Academic.

Allock, C.C., Grece, D.M. (1988). *Pathological gamblers are neither impulsive nor sensation-seeker.* Austrli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2(3), 307-31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derson, K.J. (1999).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Anderson, A. (2007) "Alcohol, Drugs, and Now The Internet?". *Behavior Analysis Digest,* Winter, Vol. 18 Issue 4: 13-16.

Atari. (1982). *The public perspective*. California : Atari.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ew York : Prentice-Hall.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and Company.

Baruch, G.K. & Barnett, R.C. (1981). Competence-related behaviors of prescholl girl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03, 79-103.

Baumrind, D. & Block, A.E. (1967). Socialization practice associated with de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Collection @ chosun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Cowan P.A. & Hetheringt.M. on(Eds), *Family transitions*. 111-163. Hillsdale.N.J. Erlbaum.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spression : New perspective. In p. J. Clayton, & J. 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 Old contr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 Raven Press.

Benson, P.L. (1997). *All kids are our kids : What community must do raise caring and responsible children and adolescents*. San Francisco : Jossey-bass.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Blum, K., Sheridan, P.J., Wood, R.C., Braverman E.R., Chen, T.J. & Comings, D.E. (1995). Dopamine D2 receptor gene variants : association and linkage studies in impulsive - addictive- compulsive behavior, *Pharmacogenetics,* 5(3):121-141.

Brenner, V. (1997). Update on the internet usage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cited from M.Griffiths(1998), Internet addication : Does it exist? In *psychology and the internet* by J.Gackenbach. San Diego:Academic Press.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 XL Ⅶ.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tion :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evey. *Psychology Reports*, 80(3), 879-882.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vard University Press.

Browne, B. L. (200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ternet use and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5(1) : 53.

Busch, T. (1995). Gender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computers. *Journal of Educational Comuting Research,* 12. 147-158.

Chak, K. Leung, L. (2004) "Shyness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Use". *CyberPsycology and Behavior* 7(5) :

Collection @ chosun

559-570.

Cicchetti, D. (1987).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Infancy : Illustration from the Study of Maltreated Young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6) 37-45.

Cicchetti, D. & Toth, S.L.(Eds). (1991).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 :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Hillsdale N.J. : Erlbaum.

Clack, D.C., Sommerfeldt, L., Schwarz, M., Hedecker, D., & Watel, L. (1990). Physical recklessness n adolescence. Trait or byproduct of depressive/ suicidal state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78(7) : 423-433.

Cohen, S. & Hoberman,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Compton, P. R. Galaway, B. (1997) *Social Work Processes*(6th ed). CA : Brooks/ Cole. 34-40.

Coopersmith, S. (1981). *The Antesecedent of self-esteem*.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Corcoran, K. & Fischer, J. (1987),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The Free Press: N.Y.

Davis, R.A. (2001a).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PIU),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pp. 187-195.

Denham, S.A., Renwick, S.M., & Holt, R.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speed reemployment :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352-360.

Egger, O. (1996). Internet and addiction.

Egger, O. & Rauterberg, M. (1996). *Internet behavior and addiction.* Semester thesis :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Collection @ chosun

1025-1034.

Elkind & Weiner. (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John Wiley & Sons Inc.

Fisher, S. (1996). Identifying videogame addi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s. *Addictive Behaviors*. 19(5):545-553.

Gackenbach, J. Guthrie, G, Karpen, J. (1998).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Consciousness in Psychology and the Internet*. San Diego Academic Press.

Gallup, G. (1982). *The typical American teenager*. Seattle times, 19, May, 17.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Graybill, D. (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 esteem. *Journal of Psychology*.100.45-47.

Greenfield. (199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internet use : A preliminary analysis* (in press).

Griffiths, M.D. (1991). Amusement machine play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video games and fruit machines. *Journal of Adolescence*, 14, 53-73.

Griffiths, M. (2000)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study evidence".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3(2) : 211.

Gri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 fact or fiction? *Psychologist,* 12, 246-250.

Griffiths, M.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 XL Ⅲ. some comments i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81-82.

Griffiths, M. (2001) "Sex on the Internet: Observ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et Sex Addi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Nov 38(4)-333.

Hirschi, T. & Gottfredson, M.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uang, A. Shih-Chieh. (2004) *The bright and dark side of cyberspace: the paradoxical media effects of Internet use on gratifications, addiction,*

Collection @ chosun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aiwan's Net-Generation. Ph. D.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Johanson, A. Gotestam, K. G. (2004) "Internet addiction: Caracteristics of a questionnaire and prevalence in Norwegian youth (12-18 year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3) : 223-229.

Johnson, D.E., Waid, L.R., & Anton, R.F. (1997). Childhood hyperactivity, gender, and cloninger's personality dimensions in alcoholics. *Additive Behaviors*, 22(5) : 649-654.

Kaltiala-Heino, R. Lintonen, T. Rimpela, A. (2004) "Internet addiction? Potentially problematic use of the internet in a population of 12-18year old adolescent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2(1) : 89-96.

Kandell, J.J. (1998)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The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 11-17.

Kiesler, S. Siegel.I. & Mcguire, T.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al. *American Psychologist*, 39(10), 1123 - 1134.

Kim, W. C. Mauborgne, R. (2005) Blue Ocean Strategy : How Tp Create Uncontested Market Space And Make *The Competition Irrelevant.* Perseus Distribution Services. 3-22.

Kimberly S.Young. (2000). 「인터넷 중독증」. 김현수 역. 서울: 나눔의 집

King, S.A. (1995) *Effects of Mood states on social judgements in cyberspace.*

King, S.A. (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Kirby, L.D. & Fraser, M.W. (1997). Risk and Regilience in childhood, In Fraser(Ed). *Risk and regilience in childhood*, - An ecological perspective. 10-33. Washington D.C. : NASW Press

Knecht, T. (1995). Joy riding: multiple criminal car rides in an intoxicated state in relation to dyssocial personality with addictive tendencies : *Arch Kriminol,* Jul-Aug, 196(1-2) : 1-5

Kraut, R. Lundmark, V., Pattercon, M.,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Collection @ chosun

53. 1017-1031.

Lacey, H.J. (1993) Self-damaging and addictive behavior in bulimia nervosa : A catchment area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190-194.

Larose, R. Lin, C. A. Eastin, M. S. (2003) "Unregulated Internet Usage: Addiction, Habit, of Deficient Self-Regulation?". *Media Psychology* 5(3) : 225-253.

Laaser, M. R. Gregoire, L. J. (2003) Pastors and cybersex addiction. *Sexual & Relationship Therapy*, Aug, 18(3) : 395.

Leung, L. (2004) Net-Generation Attributes and Seductive Properties of the Internet as Predictors of Online Activities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Jun, 7(3) : 333-348.

Lewis, C.E. & Lewis, M.A. (1983). Improving the health of children; Must the children be involved?. *Annual Review Public Health*, 4, pp. 259-283.

Lieberman, A.F. (199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s with attatchment and peer experir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Loftus, G. A., & Loftus, E. F. (1983). *Mind at play : the psychology of video games*. New York : Basic Books.

Logue. (1995). *Self-Control.* New York : Prentice Hall.

Longshore, D. Cahng E. Messina, N. (2005) "Self-Control and Social Bonds: A Combined Control Perspective on Juvenile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1(4) : 419-437.

Lorenz, V.C. & Politzer, R.M. (1990) Final reports of task force on gambling addiction in Maryland, *Secretar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McCormick, R.A. (1993). Disinhibition and negative affectivity in substance abusers with and without a gambling problem. *Addictive Behaviors*, 18(3) : 331-336.

McGlinchey, J. B. (2003) *Internet usage of college students and relationship to psychopathology and addiction symptomatology*. Ph. D. Unversity of Washington.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Collection @ chosun

Press, 1934.

Melby, J.N. & Conger, K.J. & Lorenz, F.O. (1993). Effects of parental behavior on tobacco use by young male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39-454.

Morahan-Martin, J. M. Schumacher, P. (2000)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6(1: January):13-29.

Ng, B. D. Wiemer-Hastings, P. (2005)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Online Gaming.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8(2) : 110-113.

Nalwa, K. Anand, A. P. (2003)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A Cause of Concern. *CyberPsychology & Behavior* 6(6) : 653-665.

Niemz, K. Griffiths, M. Banyard, P. (2005) Prevalenc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and Disinhibi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Dec, 8(6) : 562-570.

Osteen, J. (2004) *Your Best Life Now : 7 Steps to Living at Your Full Potential. Faith Words.* 13-20.

Parke, R.D. & Slaby, R.G. (1981). The Development of agression. in E.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N.Y.; Wiley.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44, 329-335.

Patterson, G.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es.* Eugene, OR : Castalia.

Pecora, J. P. Whit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Policy, Practice, and Research.* transaction. 64-77.

Peterson, C. & Stunkard, A.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Pettit, G.S., Dodge, K.A. & Brown, M.M. (1988). Early experir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Collection @ chosun

Rauschenberger, S.H. (1995) : Fantasy prones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 373-380.

Pitkow, J., & Kehoe, C. (1996). Emerging trends in the World Wide Web user population. *Communications of the ACM,* 39, 106-108.

Posada, J. D. Singer, E.(2005) Don't Eat the Marshmallow...Yet ! : The Secret to Sweet Success in Work And Life. Berkley. 11-16.

Reed, L. K. (2000) *A technological dis-ease : Scientific discourses, mas media, and the 'truths' about 'computer-addiction*. Ph. 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Reid, EM (1994) : *Cultural formations in text-based virtual realities*.

Ribeaud, D. Einner, M. (2006) "the 'Drug_Crime Link' from a Self-Contro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3(1) : 33-67.

Rogers.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s.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Rosenberg, M. (1985).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in leahy, R.L.(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Academic Press. Inc.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ddy, D.N. & Bornstein, M.H. (1982). Cognitive correlates of infant attention and maternal stimulation over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53, 183-188.

Santrock, J.W. (1996). Adolescence. Brown & Benchmark Publishers. Search Institute(1998), *Development assets, Search institute. Profiles of student Life: Attitudes and behaviors survey*. MN: Search Institute.

Schmitz, J. (2005) "The Interface Between Impulse-Control Disorders and Addictions: Are Pleasure Pathway Responses Shared Neurobiological Substrate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12(2-3: April-September) : 149-168.

Schoepfer, A. Piquero, A. (2006) "Self-Control, Moral Beliefs, and Criminal Activity". *Deviant Behavior* 27(1) : 51-71.

Smith, T. (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Collection @ chosun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5) : 542-563.

Song, I. D. (2003) *Internet gratifications, depression, self-efficacy, and Internet addiction*. M. A. Michigan State University.

Song, I. D. Larose, R, Eastin, M. S. Lin, C. A.(2004) Internet Gratifications and Internet Addiction: On the Uses and Abuses of New Media. *CyberPsychology & Behavior* Aug, 7(4).-384-394.

Suler, J. (2000). *"Adolescents in Cyberspace"*, Psychology of cyberspace,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adoles.html

Taylor, M. C. (2000). Psychological androgyny: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347-366.

Tittle, C. R. Botchkovar, E. V. (2005) Self-control, Criminal Motivation and Deterrence: an Investigation Using Russian Respondent. *Criminology* 43(2) : 307-354.

Tsai, Chin-Chung. Lin, Sunny S. J. (2003)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in Taiwan: An Interview Study. *CyberPsychology & Behavior* 6(6) : 649-652.

Wan, Chin-Sheng. Chiou, Wen-Bin. (2007) The motivations of Adolescents who are addicted to online Games: A cognitive perspective. *Adolescence,* Spring, 42(165) : 179-197.

Weitzman, G. D. (2000) *Family and individual functioning and computer/Internet addiction.* Ph. 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Widyanto, L. McMurran, M. (2004)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net Addiction Test. *CyberPsychology & Behavior,* Aug, Vol. 7 Issue 4: 443-450.

Young, K. S. (1996a)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y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pp. 237-244.

Young, K. S. (1996b) Pathological Internet Use: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athological Reports* 79 : 899_902.

Young, K. S. Rogers, R.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ology and Behavior* 1(1): pp. 25-28.

Collection @ chosun

Young, K. S. (1998a) *Caught in the net :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John Wiley & Sons Inc. 5.

Young, K. S. (1998b)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ology and Behavior* 1: 237-244.

Young, K. S. (2001) *Tangled in the web :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Lightning Source Inc. 11-13.

Young, K. S. Case, C. J. (2004) internet abuse in the workplace: New trends in risk management.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7(1): 105=111.

Zastrow, C. H. (2003) *The practice of Social Work.* Thomson. 16-19.

Collection @ chosun

부록 1 설문지

설 문 지

안녕 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조사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자료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08. 8.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김효순 드림

dCollection @ chosun

1. 성별 :① 남학생 ( ),② 여학생 ( )

2. 연령 :① 16세 ② 17세 ③ 18세 ④19세 이상

3. 학교 : ① 전문계고교( ) ② 인문계고교( )

4.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곳에 V표 해주세요.

1. 인터넷 사용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2.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자기 집 □② 친구 집 □③ PC방 □④ 학교
□⑤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3. 컴퓨터 설치장소는?

□① 자기 방 □② 거실 □③ 안방
□④ 형제, 자매 방 □⑤ 서재 및 가족공용 공부방

4. 인터넷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나요?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쉽다. □⑤ 매우 쉽다.

5.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6일 □⑤ 거의 매일한다.

6. 한번 인터넷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dCollection @ chosun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7. 최근 1개월간 평일기준 (월, 화, 수, 목, 금)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8. 최근 1개월간 주말 기준(토, 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9. 최근 1개월간 하루(평일과 주말을 포함) 하루 평균 인터넷 시간은?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 1주일에 인터넷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③ 7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④ 11시간 이상-14시간 미만
□⑤ 15시간 이상

dCollection @ chosun

<인터넷 중독척도>

* 다음은 여러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해당한 곳에 V표 해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					
2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3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인터넷을 하는 것을 더 좋아 한다.					
4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					
5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한다.					
6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일에 지장을 받는다.					
7	공부나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이메일부터 확인한다.					
8	인터넷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9	다른 사람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숨긴다.					
10	현실의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인터넷을 하게 되다.					
11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2	다시 인터넷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3	인터넷이 없다면 생활이 지루하고, 허전하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14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못 잔다.					
15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있거나 접속하는 것을 상상한다.					
16	인터넷을 할 때 " 조금만 더 하고 그만 두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					
17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숨기려고 한다.					
1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한다.					
19	남들과 밖에서 놀기 보다는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을 택한다.					
20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울하고 울적해 하거나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인터넷을 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dCollection @ chosun

<인터넷 기대척도>

*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다.					
2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3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4	내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꾸밀 수 있다.					
5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접근성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집 근처 및 학교 주위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전자오락실이 많이 있다.					
2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PC방이 많이 있다.					
3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전자오락기가 있는 문구점이 많이 있다.					
4	우리 집(학교) 근처에는 술집이 많다					

Collection @ chosun

<익명성 척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얼마나 자기노출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 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					
2	나의 성별을 밝히지 않는다.					
3	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밝히지 않는다.					
4	나의 나이를 거짓으로 알려준다.					
5	나의 성별을 거짓으로 알려준다.					
6	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거짓으로 알려준다.					

<정신건강 척도>

* 아래의 문항에 대해 여러분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불안감)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머리가 아프다.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3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5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6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dCollection @ chosun

(강박증)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2	자책을 잘한다.					
3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5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않자 있을 수가 없다.					
6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7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낀다.					

<스트레스 척도>

*여러분이 느꼈던 것과 생각했던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얼마만큼 생각하고 느꼈는지에 대해 V를 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주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한 적이 있다.					
2	나는 자주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3	나는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잘 느낀다.					
4	나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5	나는 조절능력 밖의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dCollection @ chosun

<자기효능감 척도>

* 아래의 문항에 대해 여러분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나는 하기 싫은 일라도 마칠 때까지 매달린다.					
3	나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4	나는 작업 목표를 세운 후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노력한다					
5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

*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한다.					
2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신다.					
3	나는 부모님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의논을 잘 한다.					
4	나는 부모님과 사소한 일이라도 이야기를 자주한다					
5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께서 화가 나면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심하게 벌을 준다.					
2	부모님은 나를 너무 어린애로 다루는 것 같다.					
3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4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dCollection @ chosun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척도>

* 아래의 문항에 대해 여러분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교사지지)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					
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3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도와주신다.					
4	우리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신다.					

(친구지지)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2	내 생각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 준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4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5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준다.					

(학업성취감)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나에게 무척 중요하다					
2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편이다.					
3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낀다.					
4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dCollection @ chosun

부록 2 분석결과

<표 1> 성별 t-test
<표 2> 학교 t-test
<표 3> 연령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4> 학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5> 이용기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6> 이용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7> 설치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8> 이용용이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9> 이용횟수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10> 이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11> 평일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12> 주말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13> 하루평균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표 14> 사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

dCollection @ chosun

<표 1> 성별 t-test

구 분	남 Mean (Std.)	여 Mean (Std.)	*t*	*P*
1. 인터넷 기대	2.2442 (.7903)	1.9548 (.7603)	3.985	.000**
2. 접근성	2.8221 (.9413)	2.8036 (.9037)	.214	.830
3. 익명성	2.1438 (.8681)	2.1220 (.7534)	.295	.768
4. 인터넷 중독	2.6399 (.8670)	2.6048 (.7438)	.482	.630
5. 불안감	2.5809 (.9064)	2.8581 (.8784)	3.321	.001**
6. 강박증	2.0793 (.7940)	2.0017 (.7678)	1.062	.289
7. 스트레스	2.9019 (.7575)	3.0286 (.6559)	1.976	.049*
8. 자기효능감	3.0819 (.7021)	3.0869 (.6138)	.083	.934
9. 의사소통	3.0140 (.8173)	3.0905 (.7897)	1.016	.310
10. 양육태도	2.7412 (.8578)	2.7321 (.8201)	.116	.908
11. 교사지지	3.0020 (.6747)	2.9866 (.6857)	.244	.807
12. 친구지지	3.3213 (.6903)	3.5190 (.6646)	3.116	.002**
13. 학업성취감	3.0905 (.7907)	3.1607 (.7518)	.907	.365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2> 학교 t-test

구 분	전문계 Mean (Std.)	인문계 Mean (Std.)	t	P
1. 인터넷 기대	2.2718 (.7751)	2.0391 (.7920)	3.441	.001**
2. 접근성	2.8101 (.9534)	2.8252 (.9073)	.188	.851
3. 익명성	2.1234 (.8605)	2.1540 (.8067)	.425	.671
4. 인터넷 중독	2.6519 (.8593)	2.6130 (.7978)	.544	.587
5. 불안감	2.5642 (.8844)	2.7663 (.9185	2.597	.010*
6. 강박증	2.0409 (.7946)	2.0725 (.7778)	.466	.642
7. 스트레스	2.9008 (.7648)	2.9862 (.6858)	1.362	.714
8. 자기효능감	3.1008 (.6786)	3.0659 (.6737)	.597	.551
9. 의사소통	2.9924 (.8207)	3.0826 (.7975)	1.293	.196
10. 양육태도	2.7557 (.9020)	2.7210 (.7909)	.474	.636
11. 교사지지	3.0468 (.6572)	2.9484 (.6946)	1.686	.092
12. 친구지지	3.3122 (.6247)	3.4464 (.7368)	2.282	.023*
13. 학업성취감	3.1279 (.7810)	3.1005 (.7772)	.407	.685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3> 연령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16세	1.9636	.5714	2.445	.046*
	17세	2.2250	.8233		
	18세	2.2680	.8294		
	19세 이상	2.0545	.7811		
	합계	2.1540	.7918		
2. 접근성	16세	2.8864	1.3007	.562	.690
	17세	2.7930	.9548		
	18세	2.8762	.9208		
	19세 이상	2.7743	.9146		
	합계	2.8163	.9290		
3. 익명성	16세	2.1061	.7683	.985	.415
	17세	2.2526	.8218		
	18세	2.0874	.8749		
	19세 이상	2.1537	.8042		
	합계	2.1370	.8334		
4. 인터넷 중독	16세	2.6909	.8407	.150	.963
	17세	2.5719	.8233		
	18세	2.6515	.8603		
	19세 이상	2.6233	.8118		
	합계	2.6289	.8300		
5. 불안감	16세	2.4545	.9101	2.142	.074
	17세	2.4635	.8443		
	18세	2.6707	.9307		
	19세 이상	2.7309	.8927		
	합계	2.6673	.9061		
6. 강박증	16세	1.9870	.8863	1.289	.273
	17세	2.2210	.8093		
	18세	2.0208	.7821		
	19세 이상	2.0484	.7774		
	합계	2.0551	.7860		
7. 스트레스	16세	2.8727	.8498	.620	.649
	17세	2.8563	.5903		
	18세	2.9573	.8248		
	19세 이상	2.9494	.6734		
	합계	2.9414	.7291		

Collection @ chosun

<표 3> 연령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2)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8. 자기효능감	16세	2.6364	.6561	3.127	.015*
	17세	2.9250	.7005		
	18세	3.1641	.6889		
	19세 이상	3.0802	.6470		
	합계	3.0835	.6752		
9. 의사소통	16세	2.7455	.8903	1.974	.097
	17세	2.8563	.7410		
	18세	3.0155	.8414		
	19세 이상	3.1160	.7886		
	합계	3.0378	.8089		
10. 양육태도	16세	3.0455	.9540	.872	.480
	17세	2.8203	.7486		
	18세	2.7585	.9207		
	19세 이상	2.6868	.8001		
	합계	2.7384	.8455		
11. 교사지지	16세	3.0000	.7500	.505	.732
	17세	3.0273	.7211		
	18세	3.0388	.6619		
	19세 이상	2.9553	.6785		
	합계	2.9972	.6775		
12. 친구지지	16세	3.0182	.5173	4.748	.001**
	17세	3.0813	.5841		
	18세	3.4087	.6743		
	19세 이상	3.4537	.7048		
	합계	3.3829	.6879		
13. 학업성취감	16세	2.5455	.7567	3.150	.014*
	17세	3.0469	.8224		
	18세	3.2342	.7675		
	19세 이상	3.0623	.7645		
	합계	3.1155	.7787		

* : $p<0.05$ ** : $p<0.01$

Collection @ chosun

<표 4> 학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1학년	2.2164	.6988	6.649	.000**
	2학년	2.3370	.8153		
	3학년	2.0232	.7724		
	합계	2.1540	.7918		
2. 접근성	1학년	2.7828	1.0403	.373	.773
	2학년	2.8492	.8977		
	3학년	2.8055	.9269		
	합계	2.8163	.9290		
3. 익명성	1학년	2.2541	.7903	1.063	.364
	2학년	2.1187	.9006		
	3학년	2.1280	.7971		
	합계	2.1370	.8334		
4. 인터넷 중독	1학년	2.5934	.7615	1.539	.203
	2학년	2.6739	.8692		
	3학년	2.6137	.8159		
	합계	2.6289	.8300		
5. 불안감	1학년	2.3579	.8214	3.628	.013*
	2학년	2.6241	.9047		
	3학년	2.7600	.9116		
	합계	2.6673	.9061		
6. 강박증	1학년	2.0773	.7986	.630	.596
	2학년	2.0450	.8101		
	3학년	2.0605	.7694		
	합계	2.0551	.7860		
7. 스트레스	1학년	2.7869	.6365	3.117	.026*
	2학년	2.9413	.7789		
	3학년	2.9795	.7066		
	합계	2.9414	.7291		

dCollection @ chosun

<표 4> 학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8. 자기효능감	1학년	2.8164	.7083	4.439	.004**
	2학년	3.1739	.6536		
	3학년	3.0812	.6699		
	합계	3.0835	.6752		
9. 의사소통	1학년	2.7738	.7637	2.722	.044*
	2학년	3.0424	.8338		
	3학년	3.0915	.7949		
	합계	3.0378	.8089		
10. 양육태도	1학년	2.7623	.7574	.155	.926
	2학년	2.7622	.9406		
	3학년	2.7176	.8028		
	합계	2.7384	.8455		
11. 교사지지	1학년	2.9508	.7271	1.353	.256
	2학년	3.0720	.6417		
	3학년	2.9582	.6875		
	합계	2.9972	.6775		
12. 친구지지	1학년	3.0459	.5948	6.826	.000**
	2학년	3.3783	.6099		
	3학년	3.4526	.7308		
	합계	3.3829	.6879		
13. 학업성취감	1학년	2.8811	.8095	4.049	.007**
	2학년	3.2391	.7574		
	3학년	3.0836	.7734		
	합계	3.1155	.7787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5> 이용기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1년 미만	3.6000	.7211	3.354	.010*
	1년 이상 ~ 2년 미만	3.0000	1.4142		
	2년 이상 ~ 3년 미만	2.6000	.5656		
	3년 이상 ~ 4년 미만	2.2182	.5688		
	4년 이상	2.1380	.7880		
	합 계	2.1527	.7924		
2. 접근성	1년 미만	2.5833	.5204	.430	.787
	1년 이상 ~ 2년 미만	2.6250	1.2374		
	2년 이상 ~ 3년 미만	2.5000	.7071		
	3년 이상 ~ 4년 미만	2.5227	.6270		
	4년 이상	2.8309	.9344		
	합 계	2.8212	.9267		
3. 익명성	1년 미만	2.9444	2.0023	1.682	.153
	1년 이상 ~ 2년 미만	2.4167	1.2963		
	2년 이상 ~ 3년 미만	2.7500	.3535		
	3년 이상 ~ 4년 미만	2.5303	.6659		
	4년 이상	2.1243	.8253		
	합 계	2.1406	.8328		
4. 인터넷 중독	1년 미만	1.4000	.6928	1.901	.109
	1년 이상 ~ 2년 미만	2.7000	.9899		
	2년 이상 ~ 3년 미만	3.0000	.0000		
	3년 이상 ~ 4년 미만	2.8182	.5618		
	4년 이상	2.6312	.8331		
	합 계	2.6298	.8306		

Collection @ chosun

<표 5> 이용기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1년 미만	2.7778	.3849	.594	.667
	1년 이상 ~ 2년 미만	2.1667	.2357		
	2년 이상 ~ 3년 미만	3.1667	.2357		
	3년 이상 ~ 4년 미만	2.3788	.8695		
	4년 이상	2.6721	.9129		
	합 계	2.6667	.9077		
6. 강박증	1년 미만	2.3333	1.1547	.733	.570
	1년 이상 ~ 2년 미만	2.6429	.9091		
	2년 이상 ~ 3년 미만	2.2857	1.0101		
	3년 이상 ~ 4년 미만	2.3117	.7445		
	4년 이상	2.0438	.7861		
	합계	2.0540	.7870		
7. 스트레스	1년 미만	2.3333	.9865	.677	.608
	1년 이상 ~ 2년 미만	3.1000	.9899		
	2년 이상 ~ 3년 미만	3.1000	.1414		
	3년 이상 ~ 4년 미만	2.8000	.5366		
	4년 이상	2.9472	.7334		
	합 계	2.9419	.7304		

dCollection @ chosun

<표 5> 이용기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8. 자기효능감	1년 미만	3.2000	.2000	1.365	.245
	1년 이상 ~ 2년 미만	2.6000	.8485		
	2년 이상 ~ 3년 미만	3.0000	.0000		
	3년 이상 ~ 4년 미만	2.6727	.6404		
	4년 이상	3.0975	.6749		
	합 계	3.0872	.6738		
9. 의사소통	1년 미만	2.8000	.2000	.775	.541
	1년 이상 ~ 2년 미만	2.5000	.7071		
	2년 이상 ~ 3년 미만	3.8000	1.1313		
	3년 이상 ~ 4년 미만	3.1455	.5802		
	4년 이상	3.0358	.8156		
	합 계	3.0376	.8102		
10. 양육태도	1년 미만	3.0000	.0000	.484	.747
	1년 이상 ~ 2년 미만	2.7500	.3535		
	2년 이상 ~ 3년 미만	3.1250	.1767		
	3년 이상 ~ 4년 미만	2.4545	.7230		
	4년 이상	2.7413	.8540		
	합 계	2.7384	.8570		

dCollection @ chosun

<표 5> 이용기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4/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1. 교사지지	1년 미만	3.0000	.5000	1.132	.340
	1년 이상 ~ 2년 미만	2.0000	.0000		
	2년 이상 ~ 3년 미만	3.0000	.0000		
	3년 이상 ~ 4년 미만	2.9091	.7006		
	4년 이상	3.0014	.6795		
	합 계	2.9958	.6784		
12. 친구지지	1년 미만	3.6000	.7211	1.236	.295
	1년 이상 ~ 2년 미만	2.8000	1.1313		
	2년 이상 ~ 3년 미만	3.0000	.0000		
	3년 이상 ~ 4년 미만	3.0545	.7904		
	4년 이상	3.3919	.6856		
	합계	3.3825	.6889		
13. 학업성취감	1년 미만	3.6667	.5773	.922	.451
	1년 이상 ~ 2년 미만	2.6250	.8838		
	2년 이상 ~ 3년 미만	3.1250	.1767		
	3년 이상 ~ 4년 미만	2.8409	.6351		
	4년 이상	3.1219	.7831		
	합계	3.1173	.7792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6> 이용 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자기집	2.1296	.7859	5.459	.001**
	친구집	3.6500	.6608		
	PC방	2.2923	.7396		
	학교	2.0000	-		
	기타	-	-		
	합 계	2.1524	.7917		
2. 접근성	자기집	2.8224	.9239	.798	.495
	친구집	2.1875	.4269		
	PC방	2.8077	1.0283		
	학교	3.5000	-		
	기타	-	-		
	합 계	2.8178	.9292		
3. 익명성	자기집	2.1289	.8342	.604	.613
	친구집	2.3750	1.0034		
	PC방	2.2607	.8118		
	학교	1.5000	-		
	기타	-	-		
	합 계	2.1391	.8327		
4. 인터넷 중독	자기집	2.6231	.8346	1.085	.355
	친구집	2.1000	1.000		
	PC방	2.7641	.7579		
	학교	2.0000	-		
	기타	-	-		
	합 계	2.6283	.8306		
5. 불안감	자기집	2.6829	.9120	.629	.596
	친구집	2.3750	.4383		
	PC방	2.5085	.8818		
	학교	2.3333	-		
	기타	-	-		
	합 계	2.6673	.9070		
6. 강박증	자기집	2.0619	.7823	1.118	.341
	친구집	2.0714	.8289		
	PC방	1.9377	.8354		
	학교	3.2857	-		
	기타	-	-		
	합계	2.0552	.7868		
7. 스트레스	자기집	2.9579	.7293	2.625	.050
	친구집	2.1500	.6806		
	PC방	2.8000	.6913		
	학교	3.8000	-		
	기타	-	-		
	합 계	2.9420	.7297		

Collection @ chosun

<표 6> 이용 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8. 자기효능감	자기집	3.0883	.6784	.343	.794
	친구집	2.7500	.6608		
	PC방	3.0769	.6450		
	학교	3.2000	-		
	기타	-	-		
	합 계	3.0851	.6748		
9. 의사소통	자기집	3.0514	.8069	1.374	.250
	친구집	2.3000	.4761		
	PC방	2.9333	.8501		
	학교	3.0000	-		
	기타	-	-		
	합 계	3.0372	.8095		
10. 양육태도	자기집	2.7171	.8423	1.448	.228
	친구집	2.6875	.3750		
	PC방	3.0064	.9077		
	학교	3.0000	-		
	기타	-	-		
	합 계	2.7384	.8463		
11. 교사지지	자기집	2.9889	.6625	2.355	.071
	친구집	2.5000	.7071		
	PC방	3.1731	.8234		
	학교	2.0000	-		
	기타	-	-		
	합 계	2.9967	.6781		
12. 친구지지	자기집	3.3854	.6790	.134	.940
	친구집	3.2000	.9933		
	PC방	3.3692	.7967		
	학교	3.6000	-		
	기타	-	-		
	합계	3.3833	.6885		
13. 학업성취감	자기집	3.1215	.7735	.132	.941
	친구집	3.0625	1.0873		
	PC방	3.0449	.8504		
	학교	3.2500	-		
	기타	-	-		
	합계	3.1157	.7794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7> 설치 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3)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자기방	2.2340	.7836	1.368	.244
	거실	2.1289	.8174		
	안방	2.1333	.7852		
	형제, 자매	1.9738	.7009		
	서재 및 가족공용	2.2071	.8045		
	합 계	2.1524	.7917		
2. 접근성	자기방	2.9056	.9282	2.373	.051
	거실	2.8213	.9209		
	안방	2.3788	.8595		
	형제, 자매	2.8197	.8875		
	서재 및 가족공용	2.7143	1.0709		
	합 계	2.8178	.9292		
3. 익명성	자기방	2.1613	.8845	1.177	.320
	거실	2.1272	.8321		
	안방	2.1667	.6277		
	형제, 자매	2.2377	.7604		
	서재 및 가족공용	1.8393	.8233		
	합 계	2.1391	.8327		
4. 인터넷 중독	자기방	2.7000	.8030	.612	.654
	거실	2.6018	.8495		
	안방	2.5697	.6502		
	형제, 자매	2.5902	.8992		
	서재 및 가족공용	2.5143	.9099		
	합 계	2.6283	.8306		

dCollection @ chosun

<표 7> 설치 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3)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자기방	2.7216	.8786	1.094	.359
	거실	2.6725	.8985		
	안방	2.4293	.9754		
	형제, 자매	2.5546	.8287		
	서재 및 가족공용	2.7857	1.2000		
	합 계	2.6673	.9070		
6. 강박증	자기방	2.0912	.8063	.426	.790
	거실	2.0100	.7764		
	안방	2.0216	.6615		
	형제, 자매	2.1265	.8540		
	서재 및 가족공용	2.0663	.7503		
	합계	2.0552	.7868		
7. 스트레스	자기집	2.9660	.7129	.103	.981
	거실	2.9211	.7467		
	안방	2.9576	.7479		
	형제, 자매	2.9443	.6492		
	서재 및 가족공용	2.9286	.8797		
	합 계	2.9420	.7297		
8. 자기효능감	자기방	3.0702	.6356	.909	.458
	거실	3.0737	.7085		
	안방	3.0606	.6954		
	형제, 자매	3.0787	.6432		
	서재 및 가족공용	3.3214	.6956		
	합 계	3.0851	.6748		

dCollection @ chosun

<표 7> 설치 장소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3)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9. 의사소통	자기방	3.0649	.8461	.968	.424
	거실	2.9851	.7855		
	안방	2.9152	.8789		
	형제, 자매	3.1574	.6773		
	서재 및 가족공용	3.1571	.9259		
	합 계	3.0372	.8095		
10. 양육태도	자기방	2.6157	.7987	1.763	.135
	거실	2.8070	.8755		
	안방	2.9091	.7901		
	형제, 자매	2.7336	.7771		
	서재 및 가족공용	2.8125	1.0554		
	합 계	2.7384	.8463		
11. 교사지지	자기방	2.9960	.6471	1.939	.103
	거실	2.9583	.7031		
	안방	2.9242	.7564		
	형제, 자매	3.0328	.5727		
	서재 및 가족공용	3.3214	.7418		
	합 계	2.9967	.6781		
12. 친구지지	자기방	3.3745	.6568	.506	.732
	거실	3.3763	.7202		
	안방	3.2727	.7918		
	형제, 자매	3.4590	.5731		
	서재 및 가족공용	3.4643	.7563		
	합계	3.3833	.6885		
13. 학업성취감	자기방	3.1263	.7396	.499	.737
	거실	3.0998	.8085		
	안방	3.0909	.8878		
	형제, 자매	3.0697	.7102		
	서재 및 가족공용	3.3036	.8343		
	합계	3.1157	.7794		

* : p<0.05 ** : p<0.01

Collection @ chosun

<표 8> 이용 용이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매우 어렵다	1.8500	1.1357	.628	.643
	조금 어렵다	2.2500	.9957		
	보통이다	2.1284	.6878		
	조금 쉽다	2.2568	.6854		
	매우 쉽다	2.1335	.8357		
	합계	2.1524	.7917		
2. 접근성	매우 어렵다	2.9375	1.5052	1.996	.094
	조금 어렵다	2.4375	.6512		
	보통이다	2.6947	.8364		
	조금 쉽다	2.6676	.8197		
	매우 쉽다	2.8980	.9715		
	합계	2.8178	.9292		
3. 익명성	매우 어렵다	2.5417	1.6631	1.174	.321
	조금 어렵다	2.4792	.8565		
	보통이다	2.2386	.7295		
	조금 쉽다	2.1591	.8550		
	매우 쉽다	2.0938	.8413		
	합계	2.1391	.8327		
4. 인터넷 중독	매우 어렵다	1.6500	.7895	1.967	.098
	조금 어렵다	2.9750	1.0278		
	보통이다	2.6800	.7643		
	조금 쉽다	2.6727	.7054		
	매우쉽다	2.6058	.8680		
	합계	2.6283	.8306		
5. 불안감	매우 어렵다	2.0000	.9128	1.488	.204
	조금 어렵다	2.4375	1.0762		
	보통이다	2.8263	.7508		
	조금 쉽다	2.6534	.8039		
	매우 쉽다	2.6399	.9628		
	합계	2.6673	.9070		
6. 강박증	매우 어렵다	1.6786	.9431	4.424	.002**
	조금 어렵다	2.5536	.8886		
	보통이다	2.2346	.7016		
	조금쉽다	2.2045	.7809		
	매우 쉽다	1.9600	.7914		
	합계	2.0552	.7868		
7. 스트레스	매우 어렵다	2.6500	.5507	.320	.864
	조금 어렵다	2.9250	.8548		
	보통이다	2.9916	.5588		
	조금 쉽다	2.9068	.6489		
	매우 쉽다	2.9411	.7896		
	합계	2.9420	.7297		

dCollection @ chosun

<표 8> 이용 용이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8. 자기효능감	매우 어렵다	3.1000	.3464	1.539	.189
	조금 어렵다	3.0000	.6590		
	보통이다	2.9979	.5099		
	조금 쉽다	2.9773	.5644		
	매우 쉽다	3.1388	.7378		
	합계	3.0851	.6748		
9. 의사소통	매우 어렵다	3.8000	.5416	2.120	.077
	조금 어렵다	3.2000	.8071		
	보통이다	2.8737	.6236		
	조금 쉽다	3.0273	.8580		
	매우 쉽다	3.0723	.8580		
	합계	3.3072	.8095		
10. 양육태도	매우 어렵다	2.7500	.5400	.815	.516
	조금 어렵다	3.0938	.8550		
	보통이다	2.8316	.7539		
	조금 쉽다	2.6705	.7846		
	매우 쉽다	2.7216	.8873		
	합계	2.7384	.8463		
11. 교사지지	매우 어렵다	2.9375	.3145	.191	.943
	조금 어렵다	3.0938	.7432		
	보통이다	3.0421	.6478		
	조금 쉽다	2.9744	.6240		
	매우 쉽다	2.9883	.7031		
	합계	2.9967	.6781		
12. 친구지지	매우 어렵다	3.2000	.6928	2.053	.086
	조금 어렵다	3.0250	.7045		
	보통이다	3.2611	.5251		
	조금 쉽다	3.3364	.5860		
	매우 쉽다	3.4397	.7454		
	합계	3.3833	.6885		
13. 학업성취감	매우 어렵다	2.4375	.9655	1.694	.150
	조금 어렵다	2.8750	.9728		
	보통이다	3.1079	.6227		
	조금 쉽다	3.2528	.6828		
	매우 쉽다	3.0962	.8301		
	합계	3.1157	.7794		

* : p<0.05 ** : p<0.01

Collection @ chosun

<표 9> 이용횟수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3)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거의 사용하지 않음	2.0429	.9154	.647	.629
	1주일에 1~2일	1.9850	.9130		
	1주일에 3~4일	2.1259	.6704		
	1주일에 5~6일	2.1851	.7526		
	거의 매일한다	2.1778	.8094		
	합 계	2.1530	.7931		
2. 접근성	거의 사용하지 않음	3.2679	1.0628	1.945	.102
	1주일에 1~2일	2.6875	.8875		
	1주일에 3~4일	2.6790	.8867		
	1주일에 5~6일	2.7127	.8260		
	거의 매일한다	2.8690	.9542		
	합 계	2.8176	.9306		
3. 익명성	거의 사용하지 않음	2.4286	1.2888	2.579	.037*
	1주일에 1~2일	1.9125	.7434		
	1주일에 3~4일	2.0206	.7389		
	1주일에 5~6일	2.3408	.8460		
	거의 매일한다	2.1432	.8332		
	합 계	2.1396	.8342		
4. 인터넷 중독	거의 사용하지 않음	1.9143	.6780	10.783	.000**
	1주일에 1~2일	2.0750	.7156		
	1주일에 3~4일	2.4815	.7859		
	1주일에 5~6일	2.6000	.6813		
	거의 매일한다	2.7689	.8418		
	합 계	2.6302	.8313		
5. 불안감	거의 사용하지 않음	2.8571	.8444	2.119	.077
	1주일에 1~2일	2.3292	.8594		
	1주일에 3~4일	2.6481	.8858		
	1주일에 5~6일	2.5721	.7994		
	거의 매일한다	2.7270	.9323		
	합 계	2.6695	.9062		

Collection @ chosun

<표 9> 이용횟수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3)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6. 강박증	거의 사용하지 않음	2.6633	.8246	2.481	.043*
	1주일에 1~2일	1.9607	.7065		
	1주일에 3~4일	2.0547	.7352		
	1주일에 5~6일	1.9659	.6927		
	거의 매일한다	2.0586	.8158		
	합 계	2.0549	.7865		
7. 스트레스	거의 사용하지 않음	2.9857	.5517	1.552	.186
	1주일에 1~2일	2.6900	.8304		
	1주일에 3~4일	2.8889	.6418		
	1주일에 5~6일	3.0060	.7244		
	거의 매일한다	2.9683	.7429		
	합 계	2.9407	.7305		
8. 자기효능감	거의 사용하지 않음	2.6714	.6497	1.480	.207
	1주일에 1~2일	3.1650	.6837		
	1주일에 3~4일	3.1062	.6301		
	1주일에 5~6일	3.0776	.5699		
	거의 매일한다	3.0892	.7037		
	합 계	3.0851	.6760		
9. 의사소통	거의 사용하지 않음	3.1571	.8234	.912	.456
	1주일에 1~2일	3.0000	.7592		
	1주일에 3~4일	3.1432	.8277		
	1주일에 5~6일	2.9015	.7027		
	거의 매일한다	3.0371	.8322		
	합 계	3.0366	.8108		
10. 양육태도	거의 사용하지 않음	2.6071	.8128	.489	.744
	1주일에 1~2일	2.7063	.9266		
	1주일에 3~4일	2.7068	.8439		
	1주일에 5~6일	2.8619	.7641		
	거의 매일한다	2.7298	.8587		
	합 계	2.7379	.8478		

Collection @ chosun

<표 9> 이용횟수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3)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1. 교사지지	거의 사용하지 않음	3.1071	.3887	1.008	.403
	1주일에 1~2일	3.1438	.7465		
	1주일에 3~4일	3.0617	.6331		
	1주일에 5~6일	2.9440	.6167		
	거의 매일한다	2.9671	.7010		
	합 계	2.9953	.6786		
12. 친구지지	거의 사용하지 않음	3.4000	.4835	1.679	.154
	1주일에 1~2일	3.6500	.7285		
	1주일에 3~4일	3.3358	.6315		
	1주일에 5~6일	3.3552	.7048		
	거의 매일한다	3.3671	.6985		
	합 계	3.3828	.6891		
13. 학업성취감	거의 사용하지 않음	3.3057	.7458	.199	.939
	1주일에 1~2일	3.0563	.7854		
	1주일에 3~4일	3.1574	.7780		
	1주일에 5~6일	3.1567	.7001		
	거의 매일한다	3.1123	.7975		
	합 계	3.1185	.7786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10> 이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30분 미만	1.9125	.9604	3.510	.008**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0024	.725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1247	.709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1177	.8169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3669	.8611		
	합 계	2.1524	.7917		
2. 접근성	30분 미만	3.1094	1.0407	.742	.564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7256	.946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921	.855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8706	.9767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182	.9530		
	합 계	2.8178	.9292		
3. 익명성	30분 미만	2.4271	1.34298	.613	.654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1037	.803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1096	.751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1678	.8847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1350	.8256		
	합 계	2.1391	.8327		
4. 인터넷 중독	30분 미만	1.7625	.5852	21.698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1293	.695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5472	.742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8823	.7867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041	.8664		
	합 계	2.6283	.8306		

dCollection @ chosun

<표 10> 이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30분 미만	2.6667	1.1418	2.242	.06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5467	.899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6114	.8562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6277	.9754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774	.8486		
	합 계	2.6673	.9070		
6. 강박증	30분 미만	2.3304	.7625	.902	.46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774	.785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185	.782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0932	.8025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0815	.7791		
	합 계	2.0552	.7868		
7. 스트레스	30분 미만	2.9375	.9401	2.434	.046*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7659	.785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011	.6417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858	.7557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711	.7343		
	합 계	2.9420	.7297		
8. 자기효능감	30분 미만	3.2875	.7003	.539	.707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829	.692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978	.6184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397	.752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942	.6486		
	합 계	3.0851	.6748		

dCollection @ chosun

<표 10> 이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9. 의사소통	30분 미만	2.9875	.8988	.239	.916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878	.739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337	.755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929	.8980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661	.8219		
	합 계	3.0372	.8095		
10. 양육태도	30분 미만	2.5782	1.0828	4.236	.00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5488	.864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6545	.831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7642	.8381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814	.7840		
	합 계	2.7384	.8463		
11. 교사지지	30분 미만	3.1406	.3647	.870	.481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396	.726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379	.614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238	.746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731	.6806		
	합 계	2.9967	.6781		
12. 친구지지	30분 미만	3.4500	.6345	2.361	.05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3463	.691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4854	.657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2539	.7214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4000	.6826		
	합 계	3.3833	.6885		

dCollection @ chosun

<표 10> 이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4/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3. 학업성취감	1시간 미만	3.2188	.6944	1.364	.245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945	.754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2177	.765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496	.8330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434	.7573		
	합 계	3.1157	.7794		

* : p<0.05 ** : p<0.01

dCollection @ chosun

<표 11> 평일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30분 미만	1.6821	.7074	5.992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1085	.739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918	.718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2290	.781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3569	.9113		
	합 계	2.1489	.7910		
2. 접근성	30분 미만	2.9231	1.1138	1.193	.31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7207	.955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941	.8537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7672	.9370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706	.9448		
	합 계	2.8176	.9308		
3. 익명성	30분 미만	1.9615	.9759	1.504	.2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0762	.803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2206	.7392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1997	.9505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0425	.7802		
	합 계	2.1374	.8334		
4. 인터넷 중독	30분 미만	2.1487	.7687	10.818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3426	.8157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6118	.7548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7649	.806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216	.8748		
	합 계	2.6272	.8320		

Collection @ chosun

<표 11> 평일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30분 미만	2.5385	.9400	.307	.87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6613	.932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6529	.882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6858	.985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7206	.8225		
	합 계	2.6670	.9085		
6. 강박증	30분 미만	1.9670	.6986	.244	.91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0578	.8587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269	.767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0851	.845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0784	.7095		
	합 계	2.0520	.7864		
7. 스트레스	30분 미만	2.8564	.7986	.881	.475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8447	.756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400	.6588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847	.738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098	.7852		
	합 계	2.9414	.7310		
8. 자기효능감	30분 미만	3.0051	.6349	.360	.837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1149	.735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588	.593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1252	.671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863	.7699		
	합 계	3.0862	.6757		

dCollection @ chosun

<표 11> 평일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9. 의사소통	30분 미만	3.1846	.7231	1.003	.406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1255	.8117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494	.747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679	.8564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745	.8777		
	합 계	3.0384	.8105		
10. 양육태도	30분 미만	2.5128	.9866	2.867	.02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6809	.899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6426	.795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027	.8444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235	.8003		
	합 계	2.7379	.8478		
11. 교사지지	30분 미만	3.1410	.6381	1.093	.359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824	.681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603	.644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828	.6886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461	.7325		
	합 계	2.9977	.6790		
12. 친구지지	30분 미만	3.4974	.7091	1.862	.116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4851	.7605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3553	.634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2733	.6335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4392	.7562		
	합 계	3.3843	.6896		

Collection @ chosun

<표 11> 평일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4/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3. 학업성취감	1시간 미만	3.2500	.6761	1.412	.229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2154	.785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1456	.781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401	.754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221	.8385		
	합 계	3.1161	.7808		

* : p<0.05 ** : p<0.01

Collection @ chosun

<표 12> 주말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30분 미만	1.5724	.5573	9.673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574	.676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263	.785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1562	.6820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3653	.8595		
	합 계	2.1508	.7916		
2. 접근성	30분 미만	2.6552	1.1268	1.991	.095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5902	.917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961	.880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7993	.8579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375	.9688		
	합 계	2.8175	.9300		
3. 익명성	30분 미만	1.9943	.9994	1.217	.30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754	.728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2164	.711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1934	.880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1241	.8648		
	합 계	2.1375	.8327		
4. 인터넷 중독	30분 미만	1.9931	.7141	18.692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2033	.775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4228	.6962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6920	.7734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276	.8418		
	합 계	2.6276	.8312		

dCollection @ chosun

<표 12> 주말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4)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30분 미만	2.5575	.9802	1.115	.349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4836	.808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719	.891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6715	.8936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6752	.9433		
	합 계	2.6667	.9077		
6. 강박증	30분 미만	2.0739	.8448	.440	.78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602	.750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088	.7704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0772	.719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0889	.8451		
	합 계	2.0535	.7864		
7. 스트레스	30분 미만	2.8276	.7796	2.915	.021*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6885	.6787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088	.715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394	.6768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306	.7678		
	합 계	2.9419	.7304		
8. 자기효능감	30분 미만	3.0345	.7893	.554	.696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000	.722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1193	.670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555	.6008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1204	.6976		
	합 계	3.0853	.6754		

dCollection @ chosun

<표 12> 주말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9. 의사소통	30분 미만	3.2207	.9123	1.207	.307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1180	.789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158	.733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307	.770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602	.8666		
	합 계	3.0372	.8102		
10. 양육태도	30분 미만	2.4828	1.0792	2.417	.048*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5000	.872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785	.8588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7464	.830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202	.7921		
	합 계	2.7379	.8470		
11. 교사지지	30분 미만	3.2500	.6714	1.119	.347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000	.6982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978	.658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836	.6538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668	.7013		
	합 계	2.9967	.6787		
12. 친구지지	30분 미만	3.5793	.7178	2.012	.09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3508	.769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5053	.645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3212	.623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3388	.7189		
	합 계	3.3840	.6890		

Collection @ chosun

<표 12> 주말기준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4/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3. 학업성취감	1시간 미만	2.9655	.9154	.979	.418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1926	.775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2083	.777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967	.7059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740	.8111		
	합 계	3.1159	.7801		

* : p<0.05 ** : p<0.01

Collection @ chosun

<표 13>하루평균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30분 미만	1.8621	.7389	7.098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233	.706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651	.751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1831	.7258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436	.8910		
	합 계	2.1508	.7916		
2. 접근성	30분 미만	2.8362	1.0072	2.030	.089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5925	.9587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081	.8834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7412	.9450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094	.9229		
	합 계	2.8175	.9300		
3. 익명성	30분 미만	2.0920	.9434	1.473	.209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543	.770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1777	.764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2265	.8999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1010	.8415		
	합 계	2.1375	.8327		
4. 인터넷 중독	30분 미만	2.0414	.5840	17.821	.00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1644	.794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5940	.749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6944	.8181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969	.8196		
	합 계	2.6276	.8312		

dCollection @ chosun

<표 13>하루평균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30분 미만	2.5575	.8119	.992	.411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6073	.939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028	.867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5822	1.0015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7730	.8489		
	합 계	2.6667	.9077		
6. 강박증	30분 미만	2.3596	.8032	2.939	.02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8571	.7384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0095	.764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0523	.828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1552	.7663		
	합 계	2.0535	.7864		
7. 스트레스	30분 미만	2.8897	.7222	2.209	.067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7699	.676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506	.7427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8901	.7401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685	.7208		
	합 계	2.9419	.7304		
8. 자기효능감	30분 미만	2.9586	.5274	.394	.81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822	.806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1036	.654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1141	.6793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598	.6504		
	합 계	3.0853	.6754		

dCollection @ chosun

<표 13>하루평균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9. 의사소통	30분 미만	3.1862	.8567	.398	.81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0904	.760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084	.8292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169	.8135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0331	.8058		
	합 계	3.0372	.8102		
10. 양육태도	30분 미만	2.5948	.9435	2.517	.041*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2.4726	.8971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7696	.8790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8011	.8286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110	.7465		
	합 계	2.7379	.8470		
11. 교사지지	30분 미만	3.1207	.7277	.938	.44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1062	.7849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9548	.6664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9683	.654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9921	.6446		
	합 계	2.9967	.6787		
12. 친구지지	30분 미만	3.4621	.6258	.893	.468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4329	.826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4181	.6289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2944	.699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3937	.6807		
	합 계	3.3840	.6890		

Collection @ chosun

<표 13>하루평균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4/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3. 학업성취감	1시간 미만	3.0000	.7039	1.055	.378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2774	.888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0964	.7966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0775	.7486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1181	.7412		
	합 계	3.1159	.7801		

* : p<0.05 ** : p<0.01

Collection @ chosun

<표 14> 사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1/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 인터넷 기대	2시간 미만	1.8737	.7896	3.791	.005**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0667	.7779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0701	.7373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2262	.7084		
	15시간 이상	2.3226	.8759		
	합 계	2.1508	.7916		
2. 접근성	2시간 미만	2.8487	.9683	2.427	.047*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7681	.8846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6282	.9579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8762	.7967		
	15시간 이상	2.9745	1.0133		
	합 계	2.8175	.9300		
3. 익명성	2시간 미만	2.0877	.9754	.303	.876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0966	.7728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1923	.7825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1713	.9309		
	15시간 이상	2.1192	.8174		
	합 계	2.1375	.8327		
4. 인터넷 중독	2시간 미만	2.0158	.6631	19.444	.000**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3333	.7374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5812	.7201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8336	.8316		
	15시간 이상	2.9723	.8527		
	합 계	2.6276	.8312		

dCollection @ chosun

<표 14> 사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2/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5. 불안감	2시간 미만	2.4693	.8741	2.764	.027*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5543	.8520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6524	.9368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6371	.8892		
	15시간 이상	2.8698	.9366		
	합 계	2.6667	.9077		
6. 강박증	2시간 미만	2.1353	.8263	.955	.432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9772	.7754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9927	.7591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1202	.7849		
	15시간 이상	2.1074	.8106		
	합 계	2.0535	.7864		
7. 스트레스	2시간 미만	2.7789	.7970	1.488	.024*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8174	.7438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9316	.6747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3.0019	.6903		
	15시간 이상	3.0745	.7542		
	합 계	2.9419	.7304		
8. 자기효능감	2시간 미만	3.0000	.7863	.236	.918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0725	.6492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3.0889	.6397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3.1196	.6269		
	15시간 이상	3.0920	.7392		
	합 계	3.0853	.6754		

dCollection @ chosun

<표 14> 사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3/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9. 의사소통	2시간 미만	3.0421	.7865	.143	.966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0362	.7492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3.0786	.8296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3.3074	.8187		
	15시간 이상	3.0015	.8610		
	합 계	3.0372	.8102		
10. 양육태도	2시간 미만	2.4803	.9972	3.950	.004**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6214	.8592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6474	.8214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8481	.8037		
	15시간 이상	2.9179	.8078		
	합 계	2.7379	.8470		
11. 교사지지	2시간 미만	3.0855	.6659	.964	.427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0399	.6626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2.9765	.6695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3.0397	.6173		
	15시간 이상	2.9124	.7485		
	합 계	2.9967	.6787		
12. 친구지지	2시간 미만	3.4895	.6319	.510	.728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4159	.7565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3.3932	.6130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3.3327	.6324		
	15시간 이상	3.3547	.7392		
	합 계	3.3840	.6890		

Collection @ chosun

<표 14> 사용시간별 차이에 의한 분산분석(4/4)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P*)
13. 학업성취감	2시간 미만	3.0921	.8511	1.699	.149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1884	.8104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3.2201	.6307		
	11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2.9903	.7636		
	15시간 이상	3.0566	.8461		
	합 계	3.1159	.7801		

* : p<0.05 ** : p<0.01